HANURI TOUR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December 22, 2016 Vol. 559

남가주 교계연합 '구국기도회'

목회자와 교계 회개 촉구…황 권한대행 위해서도 기도

남가주 교계연합 대한민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구국기도회가 12월 18일 오후 4시부터 나성동산교회(담임 박영천 목사)에서 열린 가운데 3시간 동안 뜨겁게 기도했다.

이 기도회에서 남가주한인목사회(김영구 회장),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최순길 회장), 남가주장로협의회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라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으나 제각기 기세 싸움에 나서고 있어 국론 분열과 갈등이 계속 증폭되는 위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면서 "우리 교포 이민교회와 목회자들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초유의 사태를 맞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다독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로 모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5가지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1. 한국교회는 대결과 반목으로 깊어지는 국민의 고통을 내 탓으로 여기고 회개하며 기도할 것을 촉구한다. 2. 헌법재판소는 공명정대하게 판단하되 국력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시일을 가능한 한 단축하라. 3. 국민들은 생활의 현장으로 돌아가 민주 법치국가 국민으로서 법적 절차의 결과를 엄숙히 기다리라. 4. 국무총리는 안보와 외교 그리고 경제와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엄정하며 공의롭게 관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엄규서 목사(남가주목사회 직전회장)가 "한국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남가주 목회자들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 강신권 목사(남가주교협 직전회장)는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공의를 실천하길" 기도, 강순영 목사(JAMA 대표)는 "한국과 한민족이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길" 기도했다.

[관련기사 4면에 계속]

설교를 마친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 담임)가 뜨겁게 기도를 인도하고 있다.

기독교, 한국 '최대 종교'로 부상

10년 전 비해 123만여 명 늘어난 967만여 명

한국 기독교인 인구가 2015년 기준 967만 6천여 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123만여 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인구수 기준 한국 최대 종교였던 불교 인구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2월 19일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인 인구는 2005년 844만 6천여 명에 비해 123만여 명이 늘어난 967만 6천여 명이었다. 이는 전체 인구 수의 19.7%에 달하는 수치이다. 비율로도 2005년의 18.2%에 비해 1.5% 상승했다.

통계청은 10년에 한 번씩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국내 종교 인구 분포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2005년에는 10년 전인 1995년의 850만 5천여 명에 비해 15만여 명(19.4%→18.2%)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줬었다.

이 외에 2015년 기준으로 불교는 761만 9천여 명(15.5%), 천주교 389만여 명(7.9%), 원불교 8만 4천여 명, 유교 7만 6천여 명, 천도교 6만 6천여 명, 대종교 3천여 명, 기타 13만 9천여 명 순이었다.

2005년 1,058만 8천여 명으로 인구 수 기준 국내 최대 종교였던 불교는 761만 9천여 명으로 무려 296만 9천여 명이 감소(22.8%→15.5%)했다. 천주교도 10년 만에 501만 5천여 명에서 389만여 명으로 112만 5천여 명이 감소(10.8%→7.9%)했다.

이대웅 기자

UN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12년 연속 채택

표결 없이 합의 통과…'김정은 처벌' 명확히 표현

유엔총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김정은을 포함한 인권 유린의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최종 채택했다.

유엔총회는 12월 19일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없이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12년 연속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표결없이 합의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이는 현재 북한의 인권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한편, 인권을 유린한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이 3년 연속 포함됐다.

결의안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인권유린이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리더십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겨 있어 김정은 위원장이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또 북한의 인권 상황과 핵 미사일 개발을 연계한 표현,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외국에 내보낸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표현, 북한으로 납치한 외국인을 즉각 석방하라는 주장 등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올해 결의안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만들었으며, 유엔 회원국의 3분의 1을 넘는 70여 개국이 공동스폰서로 참가했다.

강혜진 기자

"오바마 대통령, 전세계 종교자유 증진 위한 법안 서명"

러셀 무어 목사…신앙 억압받는 이들의 자유 보호에 도움될 것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전세계 종교자유를 증진시킬 법안에 서명했다.

美상원과 하원은 최근 프랭크 울프 국제종교자유법안(Frank R. Wolf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이에 대통령이 서명한 것이다.

이 법안은 1998년 프랭크 울프 하원의원이 주도해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IRFA)의 개정 버전이다. 2015년 1월 3일 은퇴한 울프 하원의원은 신실한 장로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세계 인권과 종교자유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왔다. 그는 1981년부터 무려 34년간 하원의원으로 재임하며 여러 법들을 제정했는데 국제종교자유법이 그의 대표적인 법안으로 꼽힌다.

당시 이 국제종교자유법에 의해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창립됐으며 전세계 종교자유 상황을 감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이나 국무장관, 의회 등에 조언하는 역할을 해 왔다. 미국이 외교나 경제 정책 등을 통해 극심한 종교박해 국가의 변화를 유도한 기초가 된 법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 법안이 대통령의 서명을 받자 남침례회 윤리와종교자유위원장인 러셀 무어 목사는 "이 법안은 신앙을 억압받는 이들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주는 정기 휴간입니다

"예수영광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관상기도회(금) 오후 8: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및 자선,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2017년 봄학기 신(편)입생 모집
01 ESL 과정
● 친절하고 우수한 강사들이 학생들의 언어 레벨에 따라 지도하는 맞춤형 언어교육
● 미국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한 최적화된 언어교육 과정
02 학사(B.A.) & 교역학석사(M.Div.) 과정
● 교수의 95% 이상이 미국의 유수한 (신)학교에서 Ph.D. 학위 취득
● 다문화, 다인종 공간에 맞는 신학교육
● 경건과 학문에 기초한 선교지향적 신학교육
03 크리스천상담심리 석사 (M.A.C.C.P.) 과정
● 이론과 임상을 겸비한 전원 Ph.D. 학위 소지 교수진
● 성경과 복음적인 신학과 심리학의 조화로운 통전적 상담심리
● 현 시대에 맞는 크리스천 상담심리이론의 숙지와 실제적인 활용
04 5대 비전과 특전
● 학생비자 취득을 위한 I-20 Form 발행
●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교육국 승인 학교
● 인터넷만 있으면 원격강의로 전 세계 어디서나 학위과정 이수
● 교단 산하 북미주, 중남미, 오세아니아, 유럽, 일본 등지에 흩어져 있는 470여 개 교회와 선교지와의 글로벌 네트워크
● 본교 M.Div. 과정을 마친 후, 예장 통합 목사고시에 응시 가능
입학관련 문의
● 미국 1-562-926-1023 ext. 300 / office@ptsa.edu
● 한국 지역 대외협력 코디네이터 (박정환 목사) : 010-6612-1165 / park27-42@daum.net
● 유럽 지역 대외협력 코디네이터 (주철현 목사) : 010-9086-2458 / diakonia@gmail.com
ESL 문의 및 상담
● 박동식 교수 (dspark@ptsa.edu)
www.facebook.com/SLCS.EPT
※ 전 세계 21개 지역노회로 구성된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 직영신학교인 본교를 졸업하면 본 교단 목사고시는 물론 예장통합(PCK) 목사고시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본 교단 소속 노회에서 안수 받은 뒤에는 협력교단인 예장통합과 미국장로교(PCUSA) 소속 노회로 이명이 가능합니다.
I-20 발행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후보
www.ptsa.edu
* 영주권, 시민권 소지 B.A. 학생들은 연방정부 교육국으로부터 무상으로 학자금 지원 (졸업 후 상환하지 않음)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 장 이상명 박사
이사장 박성규 목사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 926-1023 / Fax. (562) 926-1025 / office@ptsa.edu

베데스다대학교 송년음악회에서 학교 가스펠 합창단이 찬양하고 있다.

베데스다대학교 '송년음악회' 열려

베데스다대학교가 2016년 송년 음악회를 열었다. 12월 14일 나성순복음교회 본당에서 열린 이 음악회에는 음악과 교수와 학생들이 출연해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고, 곧이어 CCM으로 찬양의 즐거움을 더했다.

주일엽 교수와 박윤재 교수의 바이올린 연주, 케이시 유와 강보미의 피아노 연주, 테너 피터 전의 독창, Tie Bai의 클라리넷 연주 후에 교내 가스펠 합창단이 찬양을 불렀다. 박수진과 아드리안 박의 독창, 악기 연주팀의 공연도 있었다.

베데스다대학교는 매년 성탄절에 앞서 교수와 학생들이 송년음악회를 준비해 나성순복음교회에서 개최하고 있다. 김준형 기자

벤츄라 카운티 지역 한인교회 연합 성탄 찬양예배가 12월 11일 씨미밸리한인교회(담임 반채근 목사)에서 열렸다.

벤츄라 카운티 한인교회 '연합 성탄 찬양예배'

벤츄라 카운티 지역 한인교회들이 성탄을 감사하며 연합 찬양예배를 드렸다. 12월 11일 오후 씨미밸리한인교회(담임 반채근 목사)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성도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예배는 씨미밸리한인교회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됐다.

반채근 목사가 사회를 맡고 조인목사(카마리오제일장로교회 담임)가 대표기도했다.

글로리아 난타팀이 난타 공연으로 찬양의 문을 열고 주님의교회 성가대가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브라질리언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렀다.

벤츄라감리교회 중고등부 워십팀이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와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를 워십 댄스와 함께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마지막으로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오 거룩한 밤"을 합창한 후 벤츄라카운티교역자협의회 회장인 김민영 목사(벤추라감리교회 담임)가 축도함으로 모든 행사를 은혜롭게 마쳤다.

구세군 나성교회 주최 '토이 · 푸드 드라이브' 행사기 진행되고 있다.

구세군 나성교회

토이 · 푸드 드라이브 행사

구세군 나성교회(담임사관 이주철)은 12월 20일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 저소득층 지역 주민들에게 1000여 개의 장난감과 음식상자 및 점심을 각각 나눠줬다.

지역 주민들은 새벽 6시부터 줄을 서서 기다렸다. 안타깝게도 장난감과 음식을 미처 받지 못한 주민들은 내년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Angel Tree와 Adopt Family 행사도 열어 싱글맘이나 처지가 매우 어려운 가정에게 그들이 꼭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전달하며 그들을 위로했다.

한편 나성교회는 연중 수시로 기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 213-480-0714

www.saseducation.weebly.com
SAS 인가컨설팅,Inc
직업학교, 어학원, 종교특례대학, 일반대학, 데이케어/프리스쿨, I-20신청, 연방인가, 온라인교육사이트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찬송가 암송하며 하나님 사랑 느껴요"

장애우사랑교회 주최…제22회 어르신 찬송가경연대회

장애우사랑교회(담임 오진형 목사)가 주최하는 제22회 어르신 찬송가 경연대회가 12월 17일 오전 중앙양로병원에서 열렸다.

주최 측은 "16년째 양로병원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치매와 중풍, 파킨슨 같은 질병과 정신적인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 지난 6개월간 찬송가를 암송하며 할 일이 있다는 소망과 기쁨으로 오늘 대회를 준비했다"면서"어려운 상황이지만 돕는 손길을 통해서 귀한 행사를 마칠 수 있음을 감사한다"고 말했다.

1부예배는 오진형 목사의 인도로 기도에 정종윤 목사, 성경봉독에 조순재 부회장, 말씀에 이화룡 장로, 축도에 김창식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찬송가 경연대회는 라디오코리아에 인기 프로그램인 '아수라' 진행팀의 진행으로 어르신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다.

특별순서로 이재욱 단장과 단원들의 필그림 오케스트라의 공연도 이어졌다.

총 20명의 어르신이 경연대회에 참석해 6개월간 암송한 찬송가 495장을 암송으로 발표한 후 시상식이 이어졌다.

이 행사는 남가주한인목사회, 나성열린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엘에이사랑교회, 마동환 변호사그룹, 엘에이 그랜드 라이온스클럽, 한인동포재단, OC한인회, 올림픽칼국수, 팔가순대 등이 협찬했다.

한편 장애우사랑교회는 해마다 두 차례의 찬송가 경연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인규 기자

장애우사랑교회(담임 오진형 목사) 주최 '찬송가 암송 경연대회'를 통해 양로원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다.

인터네셔널 퍼시픽 대학교 경매 전문가 과정 개설
인터네셔널 퍼시픽 대학교(총장 하워드 리)가 경매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고 제1기생을 모집한다. 2017년 1월 5일~5월 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8시까지 수업이 있다. 총 14주간의 수업, 2주간의 실습, 시험을 거친 후 인증서도 수여된다. 부동산 경매 이론, 감정평가, 법원 경매와 법률, 우량 물건 검색, 수익성 분석 등 다양한 강의가 준비돼 있다. 수강료는 4개월간 매달 500달러로 2,000달러이지만 한 번에 낼 경우 1,800달러로 할인된다.
*문의: 888-921-8899 *이메일: admin@paclawschool.com
*학교 주소: 3055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0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 재능캠프
얼바인 홈스테이 정착 써비스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USA Tel : (949) 329-8222
Email : shelb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ABHE정회원 TRACS정회원 ATS정회원
ATS 정회원 및 미주한인 신학교 최초 D.Miss.(선교학 박사)과정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학위과정	• 선교학 박사 (D.Miss)
	• 목회학 석사 (M.Div) • 기독교 교육학 석사(MA CE) • 선교학 석사 (MA ICS)
	• 신학사 (BA)
특 혜	•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 • 저렴한 교육비 • English Track • LA Extension Class • I-20 발급 • 연방정부 학비보조 (Federal Student Aid) • 온라인 통신으로 전과정 제공 • HD 시스템 온라인 강의 • 한인신학교 최초 "Live"강의 • 100% 온라인 가능 • 다양한 학교 장학금 수여

LA 지역 입학설명회	
장소 및 시간	2017년 1월 11일 수요일 오후 4시 152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15 (Come Mission 국제본부 1층 강의실)
주요 순서	학위인가소개 학위과정소개 정부학자금 보조 소개 학생 비자 소개 온라인 입학원서 접수소개 샘플강의 소개 입학관련 질문과 답변
혜 택	설명회 참가자에게 기념품 및 입학금면제 추천 및 Grace 장학금 지급(해당자에 한함) 간단한 다과와 음료 준비

• 2017년 봄학기 등록시작 : 2017년 1월 3일(화)
• 봄학기 수업시작 : 2017년 1월 30일(월)
■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 Tel :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 이메일: admissions@gm.edu 웹사이트: www.gm.edu
• 찾아오시는 길
W Commonwealth Ave
S Brookhurst Rd
W Valencia Dr

UBM교회(담임목사 앤드류 김)가 12월 18일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는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UBM교회 크리스마스 칸타타 성료"

UBM교회(담임목사 앤드류 김)가 12월 18일 오후 5시 이 교회 본당에서 3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는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앤드류 김 목사는 "갈수록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사라지고, 세속적인 공휴일로 대체되는 것이 안타까웠다"면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나심과 오심의 이유를 선포하고, 마음껏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었다"고 전했다.

교회 측은 "칸타타의 전체 타이틀은 'Noel celebration'으로 'noel은 불어로 '크리스마스라'는 뜻과 동시에 '기쁨의 외침'이라는 뜻이 있다"면서 "예수님의 탄생하심 그 자체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의도"라고 전했다.

이인규 기자

샬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 제17회 장학금 수여식이 12월 17일 열려 14명 총 1만4천 달러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샬롬장애인선교회 '14명 총 1만5천 달러 장학금' 수여

샬롬장애인선교회가 성탄 축하 파티와 함께 제17회 장애인 가족 장학금 수여식을 거행했다.

지난 15일 열린 이 행사는 1부 예배와 2부 장학금 수여식, 3부 성탄 만찬, 4부 레크리에이션으로 진행됐다. 예배는 선교회 대표 박모세 목사가 인도하고 이사장이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장인 유영기 목사가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눅2:15-20)"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올해는 장애인 학생 혹은 장애인 가족을 둔 학생 14명이 총 1만4천 달러의 장학금을 받았다. 장학금 수혜자는 대학생 7명, 중고등학생 6명, 초등학생 1명이다.

김준형 기자

몽족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김영구 목사) 주최 '프레즈노 몽족어린이합창단' (황인주 목사)초청 음악회가 12월 20일 오직예수선교교회(담임 샘신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음악회에는 한아름여성합창단(단장 이경호 목사), 소프라노 윤기순 사모, 율동에 김수지 사모 등이 함께하며 몽족어린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한인교회 '대를 잇는 신앙' 절실

최훈진 목사…NTS 주최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발제

NTS(New Theological Seminary of the West)가 12월 12일 한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연 컨퍼런스 "남가주 한인 목회의 미래를 조명해 보는 한인 목회자 모임"에서 최훈진 목사가 '대를 잇는 신앙'이란 주제로 발제했다.

최훈진 목사가 한인교회 차세대 신앙 전수 문제에 관해 발제했다.

최 목사는 '한인'이란 동질성이 가진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한 후 이런 요소가 신앙의 대물림에 기여케 하는 방법을 찾자고 제안했다.

그는 PCUSA(미국장로교) 총회 본부에서 아시안 아메리칸 리더십 스태프로 16년간 사역했으며 2013년에는 미국의 주요 장로교단들로 구성된 APCE(장로교교회교육자협회)로부터 한인 최초로 '올해의 교육자' 상을 받기도 했다.

최 목사가 발제에서 다룬 '대를 잇는 신앙'은 한인 1세와 2세처럼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는 문제와 노인과 젊은이 간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문제 2가지와 관련돼 있다.

그는 딤후 1: 1~5절에서 모범적 사례를 찾아냈다.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 출신이지만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독교 신앙을 잘 물려받았다. 또 사도 바울로부터 멘토링을 받으며 아들이라 불릴 정도였다.

최 목사는 미국에 한인교회를 존재케 한 사회학적인 근거를 '동질성'이라 봤다. 미국에 살지만, 한국어로 예배드리고 혈연, 지연, 학연으로 묶여 있는 작은 사회가 바로 한인교회였다. 이런 동질성에 근거해 초기 한인교회는 급격히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으로부터 이민이 줄고 영어를 사용하는 자녀 세대가 증가하면서 이런 동질성은 한인교회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최 목사는 "연방 센서스국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 전체 한인 인구의 57%가 영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로 예배드리는 교회는 전체의 97%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인 인구의 최대 20%가 이중언어를 사용한다 해도 영어로 예배하는 교회가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 2세들은 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한인교회가 한국어와 문화를 고집하면서 그동안 교회 성장 동력이 되어 왔던 동질성은 교회를 노령화시키고 감소시키는 역기능을 하고 있다.

최 목사는 "동질성은 한인교회를 세우게 했다가 이젠 문 닫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인이 비교적 많은 캘리포니아 대도시는 아직 이런 현상을 못 느낄 수 있지만, 중서부의 소도시만 가도 이 문제는 심각하다"면서 "우리 교회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언제 이런 위기를 맞이하느냐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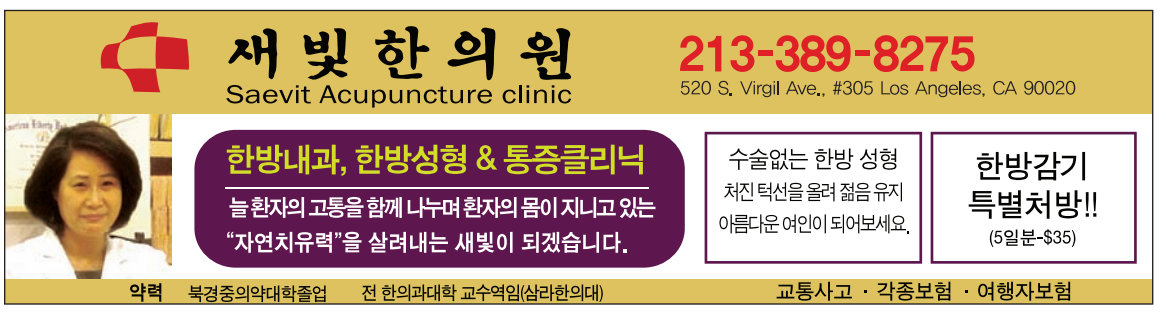
또 "한인교회는 대를 잇는 신앙을 애타게 바라고 기도하면서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라는 동질성만 고수하다가 이질성을 받아들이지 못해 결국 다음 세대를 잃고 있다. 이 문제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인데 말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나에게도 답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대를 잇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대를 잇는 신앙은 불가능하다. 내가 아는 한, 함께 예배드리지 않는 2세들이 1세의 리더십이나 교회 건물을 물려받은 사례가 없다"고 했다.

또 "세대 간 장벽도 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한인 유학생들은 한국어가 훨씬 편하지만, 노인들이 있는 1세 교회보다는 차라리 또래가 있는 2세 교회를 찾는다. 세대 차이란 불편을 감수하면서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하듯 공통분모를 늘려가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최 목사는 "언어, 문화, 세대의 장벽 속에 스스로 갇혀 살면 편하겠지만, 이것은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 골을 메우는 능력"이라고 발제를 맺었다.

김준형 기자



뉴저지교협이 12월 12일 조국을 위한 구국기도회를 뉴저지연합감리교회에서 개최했다.

"교회가 깨어 있게 하소서"

뉴저지교협 조국 위한 구국기도회 개최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종국 목사)가 12월 12일 오후 8시 뉴저지연합교회(담임 안성훈 목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를 열고 혼란한 대한민국의 안정과 교회의 각성을 위해 기도했다.

이날 기도회에 참석한 뉴저지 지역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탄핵 정국 가운데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했다.

기도회를 인도한 목회자들은 현재 한국이 맞고 있는 위기는 비단 정치 지도자들의 문제 뿐만 아니라 교회가 깨어 있지 못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회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했다.

뉴저지교협은 "작금의 한국사회는 분단 후 최악의 국가 정체성 위기, 국론 분열, 안보와 정치, 경제, 교육, 민생의 혼란 등 국가의 존망까지 흔들리는 총체적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이와 같은 국가적 난국 극복을 위해 민족 회개와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구국기도회에서는 총 8가지의 기도제목을 놓고 참석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두 손을 들고 뜨겁게 합심으로 기도했다.

합심기도가 마칠 때마다 역대 뉴저지교협 회장들이 대표기도를 했고 장동신 목사, 육민호 목사, 송호민 목사, 원도연 목사 등 교협 임원들을 비롯한 뉴저지 지역 목회자들이 함께 찬양을 인도하면서 기도의 열기를 더했다.

회장 김종국 목사는 '자는 자여 어찜이뇨'(요나서 1장6절)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현재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은 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배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이 교회가 잠들어 있기 때문"이라면서 "한국교회가 깨어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것"을 호소했다.

이날 기도 인도 순서를 를 맡은 증경회장들은 "한국교회가 바로 서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뉴욕 기독일보]

남가주 교계연합 조국의 안정 위한 '구국기도회'

[1면으로부터 계속]최학량 목사(군선교회 회장)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하길," 박종대 목사(남가주교협 전 회장)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을 도울 기독 정치인들이 세워지길" 기도했다. 민승기 목사(미기총 서부회장)는 "이념과 정쟁이 아닌 용서와 화해가 펼쳐지는 조국이 되길," 조선환 장로(이북5도민협회 회장)는 "북한 정권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 자비, 은혜가 조국에 넘치길" 기도했다. 표세흥 목사(남가주교협 부회장)는 "이단 세력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했고 강지원 목사(남가주여성목사회 회장)는 "미국과 위정자를 위해" 기도했다.

이어 백지영 목사(남가주목사회 전 회장)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박세헌 목사(남가주목사회 부회장)가 "1. 정부와 국민은 도덕성을 회복하고 부정부패를 청산하며 사신우상을 타파하자, 2. 국민은 분열없이 화합하여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자, 한반도의 전쟁은 절대 안된다. 3. 북한은 핵을 즉시 포기하라, 4. 한국교회는 개혁, 연합, 부흥하여 평화통일과 민족복음화에 앞장서자, 5. 이민교회는 조국과 우리 민족을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자"는 구호를 선창했다.

이 기도회는 좌우 정치색을 배제한다는 전제 하에서 열렸지만 실제 기도인도자들은 한국의 위기를 언급하며 보수적 발언을 이어갔다. 대통령 탄핵이 북한의 지시라든지, 대통령 하야를 반대하는 보수 세력이 결집하고 있다든지 하는 발언도 있었고 기도회 중 대형 화면의 배경 이미지도 대통령 하야 반대 피켓을 들고 있는 한국의 시위 모습이 사용됐다.

급기야 사회를 맡은 김종용 목사(남가주교협 수석부회장)는 "정치적 발언은 자제하고 자신이 맡은 기도 제목에 대해서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이날 기도인도자들은 하나 같이 신실한 기독교인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위한 기도도 빼놓지 않았다.

김준형 기자

남가주한인합창단의 연주 모습.

남가주한인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남가주한인합창단이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김정자 단장, 유의철 지휘자가 이끌고 있는 이 합창단은 3년 전 창립됐다. 현재까지 45명의 단원이 2회에 걸쳐 '한국 가곡의 밤' 연주회에 참여했고 배재코랄 기념음악회에서도 연주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나 환영한다. *문의: 213-500-2712

조동혁 박사 칼럼 13

조동혁 내과/신장내과

임상실험과 사망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꺼려한다.

특히 한국 정서는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을 더욱더 꺼려하는 것 같다. 사람 이름을 빨간 색으로 쓰면 화를 내는 것도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알려주는 단적인 예일 것이다.

그런데 몸이 아파 의사를 찾은 환자들에게 의사들은 종종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다보면 간혹 환자들이 화를 내거나 서운해 하는 경우도 종종 겪게된다. 오늘은 왜 의사들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진료 중 환자들과 만성질환에 대해 이야기 하다보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된다. 혈압 관리를 안하면 사망률이 이 만큼 높아지고, 콜레스테롤을 관리하지 않으면 이 만큼 높아지며, 당뇨가 걸리면 당뇨가 없는 사람보다 16년 먼저 죽음을 맞게 될 수도 있다는 식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된다.

또 혈압을 조절하지 않으면 뇌졸증이 올 위험성이 이렇고, 그러다보면 반신 마비가 될 확률이 이렇다는 식의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간혹 잘못 이해하는 환자들도 있다. 의사가 환자에게 겁을 줘서 병원을 오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런 말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일뿐 자신한테는 올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흘려 듣기도 한다.

의학계에서는 의학적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임상실험을 한다.

그런다음, 그 치료의 결과로 합병증이나 눈에 띄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통계를 낸다. 그리고 의사들은 이 통계를 바탕으로 환자들을 치료한다.

의사들이 이런 죽음이나 심근경색증, 뇌졸증 등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따라서 중증의 질병이나 만성질환에서 많은 사망률, 심근경색증, 뇌졸증 등의 좋지않은 결과들이 그 병의 결과로 정하고 통계를 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 내 나이가 이런데, 뭐 그 정도 살다 죽으면 되지 뭐"라고 하며 그 치료에 응하지 않는 환자를 보게된다.

임상실험에서 어떤 방법이 사망률을 반으로 줄인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사망률이 몇 배나 더 높은 그룹의 사람들은, 사망하지는 않을지라도 그 병의 합병증은 많았을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통계를 보고 환자 하나 하나가 그 병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결과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의 통계를 보다보면 어떤 질병의 관리가 어떤 방법으로 되었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합병증의 위험도가 몇 배가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것을 알 수 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최선의 방법은 가장 좋은 통계를 따라하는 것이다.

컴퓨터와 전산망의 발달로 수많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졌고, 통계 또한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자료를 옳바르게 분석하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의사의 지식을 바탕으로 치료할 때, 더욱 건강한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이 사 장 : 오병익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나발과 아비가일이 주는 교훈

사무엘상 25:23~38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사무엘상 25:2~3에서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삼천이요 염소가 일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고 아비가일과 나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온에서 5리정도 떨어진 갈멜이라는 곳에 다윗이 육백 명의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망명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고 훗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하고 거역하여 불순종했고 오히려 자기를 추켜세워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신 아말렉과의 전쟁을 자기 전술과 전략으로 이긴 것처럼 자기 이름으로 공덕비를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이 철저히 금하셨음에도 아말렉 사람들의 가축들을 골짜기에 자기 몫으로 숨기기도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세움 받고 쓰임 받는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교만하게 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공덕을 치하하고 자기이름으로 행세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부득이 그를 버리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와같은 사울을 이미 버리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스라엘 왕의 후계자로 이새의 여덟 번째 아들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다윗은 늘 성령충만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인이었습니다. 또한 맡겨진 양떼를 돌봄에 있어서도 맹수들과 싸우면서까지 목자의 사명을 다해 돌보았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목숨보다 귀한 것으로 여겨 신앙인격적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맘에 들어 하셨습니다.

이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에게 망명생활의 훈련을 시키시는 과정입니다.

무용(武勇)에 뛰어난 600명의 용사들이 다윗왕조를 세우기 위하여 훈련하고 있었던 곳이 갈멜이었습니다.

다윗은 근처에서 양과 염소를 돌보고 있던 나발의 목자들을 당시 강도들이 들끓었기 때문에 그의 군사들로 하여금 해치지 못하게 지시하고 더불어 목동과 양떼까지 보호하여 지키게끔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나발의 양털 깎는 날이 되어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유목민들에게는 양털 깎는 날이 수입이 생기는 소망적인 날이라 큰 잔치를 베풀고 지나가는 나그네까지도 넉넉히 대접함으로 그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여 인심을 후히 쓰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고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삼상25:5~8)"고 그의 부하 열 명을 나발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나발은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삼상25:10~11)"고 합니다. 그는 빈정대며 주인에게서 떠나 반란을 시도하여 갈라져나가 문제를 일으키는 놈들이 있다고 다윗을 빗대어 욕을 한 것입니다.

나발의 미련함은, 첫째로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케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쓰실 사람인 다윗을 몰라본 것입니다. 둘째로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가축들을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여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밝히고 계십니다. 나발의 세 번째 미련함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분별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발의 이런 미련함에 빈손으로 돌아온 다윗의 부하들을 보고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사백 명 가량은 칼을 차게 하고 그들을 죽이러 올라가고 이백 명은 그 소유물 곁에 남겨 두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도 실수였습니다. 자신이 그들의 목동과 가축을 돌보아준 것에 대한 응당한 댓가로 생각한 다윗은 나발이 자기를 모욕하고 무시했다고 생각하여 감정적으로 대처한 것입니다.

로마서 12:19~20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하셨습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그의 종으로부터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삼상25:14~17)"고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서둘러 떡 이백 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다섯과 볶은 곡식 다섯 세아와 건포도 백 송이와 무화과 뭉치 이백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다윗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나발을 향해 가고 있는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은 본문의 내용과 같이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자신의 남편 나발이 너무나 서운하게 대한 것에 대해 용서를 빌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쓰실 계획을 압니다. 곧 왕이 되실텐데 왕좌에 오르시게 되면 이런 미련한 사람 때문에 피 흘리는 죄를 지었다는 것이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왕의 허물이 될까봐 이처럼 사정하고 비오니 미련한 자들을 죽일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런 피흘림을 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하고 다윗에게 하나님을 인식시키는 말을 합니다.

이에 다윗은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더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삼상25:32~34)"합니다. 그리고는 그 음식을 받고 그녀의 말을 듣고 그 청을 허락했다고 말을 합니다.

아비가일이 그 남편 나발에게로 가보니 왕의 잔치같은 잔치를 하며 술에 크게 취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을 바로 말하지 않고 다음날까지 기다려 술이 깬 후에 말을 해줍니다.

신앙적인 지혜는 반드시 해야 할 말도 상황과 때를 분별하고 상대를 잘 알아 상대가 영적인 유익함으로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신앙인격으로 슬기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편 나발이 다음날 아침, 술이 깨어 일어났을 때 전날에 있었던 일을 설명합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다 들은 그는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어 열흘 후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나발의 어리석음을 통한 아비가일의 신앙지혜를 본받으라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교훈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오실 메시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대적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아비가일은 그 남편이 죽은 후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거역하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이상 회개할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나발과 같이 없애버리십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은 예수님과 영원한 영적신부가 되도록 예수님의 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의 목자인 목사들은 오로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 그 교회에 속한 양 떼가 모두 하늘나라 가도록 하기 위하여 진액을 다하여 애쓰고 있다면 이런 목자의 뜻을 따라 함께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축성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예배시간 안내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810-3455 / F. (626) 964-5559

담임목사 청빙

1974년 11월 24일 미조리 세인트루이스에 설립 된 본 교회는 성도들이 형제처럼 서로 의지하며 주님의 평화가 늘 함께 하기를 노력하는 신앙 공동체로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삶을 닮아 가기를 소망하는 그 무엇으로도 포장되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 성도의 삶에 역사하는 교회,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꿈꾸는 참 목회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원자격
1. PCA 교단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2. 신학대학원(M. Div)를 졸업하고, 3년 이상 목회 경력이 (부목사 포함) 있으신 분으로 55세 이하
3.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4. 한국어와 영어 구사가 가능 하신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1부
2. 졸업증명서 및 안수 증명서 각 1부
3. 자기소개서(성장배경, 소명, 목회경험, 가족소개) 1부
4. 목회 계획서 1부
5. 최근 6개월내 설교 2편(DVD, 영상 File)

서류제출 마감일 : 2017년 1월 15일(주) 소인 까지

제출처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세인트루이스 한인제일장로교회)
(Attn : 청빙위원회) 3350 Adie Rd. St., Ann, MO 63074
E-mail : stlfirstch@gmail.com

기타사항
1. 제출 서류는 상기 주소로 일반 메일과 이메일로만 접수 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분은 개별 통지 합니다.

세인트루이스 제일 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http://www.stlfkpc.org)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몰 322호)

LA 예닮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닮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닮교회 담임목사

사역자 청빙

휴스턴한인중앙장로교회에서는
함께 동역할 신실하신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구 분
파트 혹은 풀타임 사역자

부 서
교육부와 교구
(영유아부/중등부/주중학교/교구)

자 격
정규 신학교 졸업 전도사 목사

이력서 보내실 곳
jhoyee@hotmail.com
T.(281)752-0700 Ext.2

저희 교회에 대한 정보는
www.kcpch.org

휴스턴한인중앙장로교회

•송재호 칼럼

대강절의 촛불(요1:9)

송 재 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12월은 기다림의 시간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대강절의 네 주간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대강절의 기간에는 특별히 기다림을 상징하는 네 개의 촛불을 밝히곤 한다.

대강절 첫째 주일의 초는 보라색(purple)으로서 소망의 촛불(Candle of Hope)이라고 부른다. 이 촛불은 구약성경에 기록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며 밝히곤 하는데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과 어두움에 처한 온 인류의 소망의 빛이 되심을 의미 하는 것이다.

대강절 둘째 주일의 촛불은 보라색 촛불이다. 이 촛불은 준비의 촛불(Candle of Preparation) 혹은 회개의 촛불이라고 불리곤 한다. 무엇보다 이 촛불을 보며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나의 모습을 회개하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 자신을 돌아보며 교만과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촛불을 켠다는 의미인 것이다.

대강절의 세 번째 초는 분홍색(pink) 촛불이다. 이 촛불은 사랑의 촛불(Candle of Love)이라고 불린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신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 촛불을 밝히며 우리도 사랑의 촛불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촛불을 켜게 되는 것이다.

대강절의 네 번째 초는 또 다시 보라색 촛불이다. 넷째 주의 보라색 초는 기쁨의 촛불(Candle of Joy)라고 불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전한 천사들의 메시지는 기쁨의 소식이었다. 우리는 이 촛불을 밝히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고통과 슬픔에 쌓인 인류에게 구세주를 만나는 큰 기쁨이 됨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강절의 마지막 다섯 번째 초는 흰색(white)이다. 우리는 이 촛불을 그리스도의 촛불(Christ Candle)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12월 25일, 성탄일에 이 마지막 촛불을 밝히면서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시는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온 세상에 알리는 이 촛불을 켜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오래된 기억 속에서 한해의 끝자락을 보내면서 강대상 앞에 켜져 있던 촛불을 기억하곤 한다. 무엇보다 겨울의 찬바람을 맞으며 예배당에 발을 디디던 순간 우리에게 따뜻함을 가져다 줬던 대강절의 촛불을 잊을 수가 없다. 어느덧 벌써 우리는 한해의 마지막 12월을 보내며 네 번째 촛불을 켜야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우리의 기다림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바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이 있었나니"라는 본문의 말씀처럼 내 삶의 어둠이 주님의 참 빛으로 밝혀지는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 하라. 그분이 내 마음에 오시는 순간 내가 경험했던 어둠의 고통과 아픔들이 예수님의 밝은 빛으로 떠나가게 됨을 믿길 바란다.

주여 일어나소서

박 성 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막4:35-41에 보면, 예수님을 태운 배가 갈릴리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 침몰할 지경에 이르게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구원을 요청했다. 그러자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해졌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셨다.

지금 조국 대한민국은 큰 광풍에 휩싸여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되어 직무정지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진보 좌익단체와 보수 우익단체는 광화문과 종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하며 기싸움으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한국은 정치계가 이미 방향감각을 잃었고, 언론은 세몰이하는 좌익단체와 우익단체의 눈치보기에 여념이 없다. 기업가들은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몸에 배여 버렸고, 종교인들조차 영적 더듬이가 마비되어 버렸다. 이런 작금의 혼란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미스바 회개운동같은 눈물의 기도를 올려야 할 것이다.

지금 한국이 하나님앞에 지은 죄가 골3:5의 5가지 죄악이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며칠전 Thomas S. Vandal 미8군 사령관은 30일~ 60일 안에 한반도에 전쟁이 올 수도 있다고 예견했다. 정말 조국은 지금 위기상황속에 놓여 있다. 가장 큰 위기는 이것을 위기로 느끼지 않는 교회의 불감증이다.

그러나 조국은 결코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큰 광풍이 아무리 날뛰어도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배는 결코 뒤집어 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나라요, 살아 있는 순교자들이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나라요, 세계선교의 마지막 주자로서 공산권을 넘어 이슬람으로, 이슬람을 넘어 이스라엘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선교 사명이 있는 민족이다.

미국은 세계선교 1위 국가로 세계선교 2위 국인 한국과 함께 파트너쉽 국가로 쓰여질 나라이다. 한국은 선교의 보병부대요, 미국은 선교의 포병부대로 함께 마지막 선교의 대부흥을 일으킬 나라이기에 마귀는 이 두나라를 집중 공격하고 있지만 결국은 주님의 승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런 나라가 될 것이다. 다만 이 환난은 기도를 통해 부흥으로 바뀌어 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꾸중들은 것은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다. 이 광풍속에 주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왜 몰랐느냐? 주님을 깨우기만 하면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큰 광풍을 즉시 잔잔케 하실텐데, 어찌하여 주님께 먼저 부르짖지 않았느냐 ? 하는 것이다.

그렇다! 정말 지금은 조국이 비상시국이다! 지금이야말로 주무시는 주님을 부르짖어 깨워야할 때인 것이다. 주님께서 일어나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것이다.

교회와 주의 종들은 이 시대에 운전대를 맡은 자들이다. 아무리 차안에 모두가 술에 만취해 있어도 운전대를 잡은 자가 깨어 있으면 그 차는 통과된다. 주님은 이 시대의 운전대를 잡은 교회를 보고 계신다(렘5:1).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했다.

창 19:29에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의 거하시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롯을 구하셨던 것이다.

행 27:23에 보면 유라굴로 광풍속에 모두 죽게된 276명은 바울의 기도와 선교사명 때문에 모두 살게되었다. 기도하는 한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도 조국을 구하기위해 눈물로 주님을 깨우는 한사람을 찾고 계신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한수희 칼럼(16)

기독교상담의 의미와 필요성

한 수 희 강사
기독교상담 세미나

기독교상담에 대한 편협하고 왜곡된 시선들은 교회 안에서 여전히 존재한다. 기독교상담이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령의 사역을 행하여 내담자를 돕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기독교상담은 내담자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도록 돕고, 모든 상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며, 상담의 모든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일반상담이 문제의 중심과 해답을 인간의 형이상학적 관점과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에서 찾으려 하는 것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기독교상담은 기독교의 기반 안에 심리학적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애굽을 나와 가나안을 향했던 이스라엘백성이 애굽인들의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심리학은 인본주의적 위험함을 가지고 있는 학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상담은 주의 깊은 걸러짐을 통한 통합적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탄이 잘 쓰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어떤 중요한 진리에 대해 사이비 모조품이 나타나게 한 다음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그 오류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 오류를 피하려고 애쓴 나머지 모조품이 왜곡한 그 중요한 진리 자체를 놓치게 만드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인본주의의 오류에 분명히 맞서야 한다. 그러나 인본주의가 모조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조차 외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새언약과 새계명(요한복음 13:34)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풍성히 맛보도록 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혼자서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시는 것으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으신다. 오히려 하나님의 방식은 당신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함께 선을 이루어 가길 원하신다. 교회내의 상담은 상담과 양육, 지지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회복되어 세워진 경험이 있는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아름다운 확대 재생산의 과정이다.

"연약해도 괜찮아, 그건 니 잘못이 아니야. 너의 환경 때문이었고, 사회제도의 문제였어"라고 속삭이며 위로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연약함 때문에 겪는 고통에 동참하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오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생명과 회복이 허락되어 있음을 소개하는 것이다.

온갖 너절한 행동과 감정을 품고 있는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은 심겨져 있다는 것과 그로 인해 그 안에서도 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음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다.

행사기간 12.15-12.28.16

Wholesale Restaurant Supply Central Ave Cash & Carry

GRAND OPENING

400불 이상 구매시 타올 디스펜서 증정

200불 이상 구매시 엘리자베스 아덴 뷰티 세트 증정

T. 213-251-1070

3525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구, 아씨수퍼 지하) [OPEN HOURS] M-F 6:30 am - 6:00 pm / Sun 8:00 am - 4:00 pm

그로서리

오픈특가

이천 햅쌀 RHEE CHUN RICE 40LB 14.99

CJ 소고기 다시다 CJ BEEF SOUP STOCK 10X2.2LBS 77.99

CJ 부침/튀김가루 PANCAKE MIX/FRYING MIX 10X2.2LBS 14.99

아씨 순창고추장 ASSI RED PEPPER PASTE 37LBS 37.99

아씨 순창된장 ASSI SOY BEAN PASTE 37LBS 27.99

이금기 간장 SOY SAUCE/LEE KUM KEE 5GAL 16.99

오뚜기 라면사리 OTTOGI RAMYONSARI 48x3.88oz 14.99

왕 진당면 STARCH NOODLE/WANG 6X2.27KG 29.99

판다 굴소스 OYSTER SAUCE/PANDA 6X5LB 32.99

혼다시 HONDASHI/AJINOMOTO 10X2.2LBS 119.99

우나기소스 UNAGI SAUCE/KIKKOMAN 6X5LBS 49.99

아끼꼬 참기름 SEASAME OIL/AKIKO 4X1GAL 29.99

백설 요리당 COOKING SYRUP/BEKSUL 6X2.45KG 27.99

오뚜기 돈까스소스 PORK CUTLE SAUCE 6X2.1KG 34.99

아씨 꽃소금 ASSI SEA SALT 20LBS 5.99

C&H 설탕 C&H SUGAR 50LBS 23.99

보리차 ROASTED BARLEY 44LBS 67.99

아씨 멸치젓국 ASSI FISH SAUCE 3X1.18GAL 17.99

고춧가루/김치용&조미용 ASSI HOT PEPPER POWDER 8X5LBS 84.99

곰표 밀가루 WEAT FLOUR 6x2.5kg 17.99

마요네즈 MAYONNAISE/ANTONIO 4X1GAL 21.99

미츠칸 스시식초 SUSHI VINEGAR/MIZKAN 5.28GAL 34.99

식초 DISTILLED WHITE VINEGAR 4X1GAL 6.99

기꼬만 멤미소스 MEMMI SAUCE/KIKKOMAN 6X64OZ 49.99

레몬쥬스 LEMON JUICE 4X1GAL 24.99

폰즈소스/레몬&라임 PONZU DRESSING&SAUCE 6X1.89L 39.99

기꼬만 테리야끼소스 TERIYAKI SAUCE/KIKKOMAN 4x1GAL 49.99

샐러드드레싱/머스타드&참깨 MUSTARD&SOY SAUCE DRESSING 6X32OZ 39.99

CQ 콩오일 SOYBEAN OIL/CQ 35LBS 18.50

S&B 골든커리 GOLDEN CURRY/4KINDS 12X8.4OZ 24.99

헌트 케찹 HUNT'S KETCHUP 6X7LB 21.99

옥수수캔 WHOLE KERNEL CORN 6X6LBS 21.99

롤리팝 캔디 ASSORTED ROUND LOLLIPOPS 25LBS 34.99

기꼬만 혼쯔유 HONTSUYU/KIKKOMAN 6X1.8L 49.99

알루미늄 호일 ALUMINUM FOILSHEETS 9X10 3/4in 500 6.99

랩/12in ALL PURPOSE CLING FILM 12in x 2000ft 10.99

컨테이너/세제

오픈특가

컨테이너 MEDIUM HINGED LID CONTAINERS 2x100ct 17.99

국물 투고용기 PLASTIC QUART CONTAINERS 240 sets 39.99

12oz 컨테이너 12oz CONTAINERS 500 19.99

5oz 컨테이너 5oz CONTAINERS 1000 25.99

컨테이너 CONTAINERS 200 SETS 64.99

샌드위치 컨테이너 CONTAINERS 4X125CT 21.99

6oz 음료용 컵 6OZ FORM CUPS 1000PCS 14.99

폼접시 9in/1&3칸 FOAM PLASTIC DINNERWARE 500 14.99

점보블랙빨대 JUMBO BLACK STRAW 10BOX 250PCS/BOX 9.99

대나무 젓가락 BAMBOO CHOPSTICKS 2000EA 21.99

플라스틱 스푼/포크 FLASTIC SPOONS/FORKS 10PK 100pcs/PK 14.99

디너냅킨/1-PLY 1-PLY DINNER NAPKIN 34.99

멀티폴드 타올 MULTIFOLD TOWL 4000CT 15.99

음료용냅킨/1PLY BEVERAGE NAPKIN 8X500CT 9.99

페이퍼롤타올 PAPER ROLL TOWEL 6ROLLS 19.99

다목적 페이퍼타올 ALL PURPOSE PAPERTOWEL 2 PLY 30 ROLLS 21.99

화장실용 휴지 2-PLY BATHROOM TISSUE 96 ROLLS 39.99

핸드솝 HANDSOAP/CHEMCRAFT 4X1GAL 13.99

수퍼폴리 장갑S/M/L SUPER PLOY GLOVES 10X100 12.99

철수세미 STAINLESS STEEL SCRUBBER 6BOX 12PCS/BOX 20.99

11X14 롤백 PLASTIC PRODUCE BAGS 4 ROLLS 14.99

땡큐백 THANK YOU BAGS 12X7X22in 9.99

쓰레기봉투 33G BLACK TRASH BAG 33 GAL 100CT 17.99

쓰레기봉투 55G BLACK TRASH BAG 55 GAL 100CT 19.99

물비누 그린&레몬 DISH WASH/LEMON&GREEN 4X1GAL 13.99

오븐&그릴 클리너 OVEN & GRILL CLEANER 4X1GAL 16.50

블리치 BLEACH/PURE BRIGHT 4X1GAL 9.99

그릴 크리너 GRILL-BRICK/GRILL CLEANER 4X1GAL 16.50

변기커버 TOILET SEAT COVER 250PC 20PK 24.99

윈덱스 WINDEX 4X3.78L 29.99

포스 롤 DATA TERMINAL ROLLS 50ROLLS 44.99

게스트체크 GUEST GHECKS 3.50X6.75in 50BOOKS 29.99

냉장/냉동

강원도 동광/평창 고랭지 포기김치 KIMCHI/WHOLE 10KG 35.00

단무지 PICKLED RADISH 15X2.2LB 27.99

염장미역 SALTED SEAWEED/ASSI 33LB 31.99

아씨 천사채 SEAWEED NOODLES 10X2.2LB 24.99

하나 사누끼우동 FROZEN SANUKI UDON 8X2.75LB 16.99

칼국수&짜장국수 FRESH NOODLES 10X2.2LB 29.99

맛사랑 사각어묵 FISH CAKE 20LB 29.99

신당동 떡볶이떡 RICE CAKE/ASSI 20X2LB 41.99

아씨 해물모듬 MIXED SEAFOOD/ASSI 15X2LB 117.99

꽁치 MACKEREL PIKE 10kg 19.99

깐가자미 PEELED SOLE 10LB 25.99

새우젓 SALTED SHRIMP 66LB 79.99

몸에 좋은 낙지 FROZEN SMALL OCTOPUS/ASSI 20X1.5LB 89.99

정육

돼지 불고기 PORK BUTTS SLICED 2.19LB

흑돼지 삼겹살 PORK BELLY SKLS JP-SP 2.69LB

소 불고기 BEEF CLOD XT SLICED/2.5mm 2.99LB

소곱창 BEEF SMALL INTESTINES 1.49LB

막창/대창 BEEF ABOMASUM SWIFT 2.99LB

도가니 BEEF KNEE BONE 0.99LB

사골 BEEF LEG BONE 0.99LB

닭 다리살 CHICKEN LEG MEAT 0.99LB

일부 세일품목에 한하여 수량제한이 있으며 조기품절 될 수 있습니다. 광고제작상의 오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회 및 선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 - 버질중학교 / 토요새벽 - 1가와 버몬트 코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제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90019
T.(818)983-9024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믿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박영천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공부방 토 오전 9:30~12:3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어머니기도모임 수 오전 10: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중고등부 오전11:00
2부예배 오전11: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분 (화~금)
오전 6:0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목요일)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주일오후 12:00
토요탈북민 모임 오전 11:00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737-3009 C. (213)215-8523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종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기도회 오후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김범수 치과
General & Cosmetic Dentistry
Bryan Kim D.M.D.
김범수 치과
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T.(213)389-0937, (213)389-0938 F.(323)735.1937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대표 **주해홍** 목사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한동협 출범감사예배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을 하며 각오를 다지고 있다.

동성애에 대처 못하면 유럽교회처럼 사멸할 것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출범…차별금지법 반대 운동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하 한동협)가 12월 19일 오후 팔레스호텔에서 감사예배를 드리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한동협은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를 비롯해 동성애조장반대국민대회 위원회, 동성애반대시민단체, 한국교회총연합네트워크 등 그동안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해 온 교계 및 사회단체들이, 동성애 반대를 위한 단일 조직체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해 서로 힘을 합해 만든 것이다.

"복음 선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동성애 합법화와 (동성애 관련 독소조항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고 성경적인 성(性) 및 가족윤리를 보존·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동협은, 이를 이루기 위해 앞으로 △세계적 연대 △국민대회 및 국제대회 개최 △각종 법률사건 대리활동 지원 등을 펼쳐갈 방침이다.

한동협 대표회장인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담임)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반기독교 정서와 공격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목회자와 교회는 이러한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며 "우리는 이제 시대정신과 사상의 흐름에 눈을 떠야 한다"고 했다.

소 목사는 "지금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반기독교 세력의 배후에는 네오마르크스주의가 있고, 그들이 가장 큰 무기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동성애"라며 "만약 한국교회가 동성애 문제에 대처하지 못하면 유럽의 교회들처럼 사멸하고 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성애 문제는 사회적인 이슈가 아니라 진리를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이다.

아니, 그것을 넘어 사상전, 문화전, 미디어전"이라며 "한동협이 총사령본부가 되어 반동성애 대책에 관한 이론과 전략을 수립해 막아내고 한국교회와 건강한 사회를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출범감사예배는 1부 예배와 2부 출범식 순서로 진행됐다. 예배에선 김선규 목사(예장 합동 총회장)가 설교했고, 나라와 민족, 동성애 반대, 건전한 한국사회와 다음세대 등을 위한 주제기도 순서도 마련됐다.

이어 출범식은 이용희 교수(한동협 국제본부장)의 사회로 소강석 목사의 환영사, 홍호수 목사(사무총장)의 경과보고, 임원위촉패 증정, 격려사 및 축사, 결의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김진영 기자

다문화사회진흥원은 12월 20일 오후 서울 용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2층 강당에서 '다문화가정 지원과 사회적 통합방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간담회

다문화사회진흥원…'한국적 다문화정책' 모델 모색 자리 마련

다문화사회를 맞이하여 '한국적 다문화정책'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다문화가정 지원과 사회적 통합방안'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12월 20일 서울 용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2층 강당에서 다문화사회진흥원 주최로 열린 이번 정책간담회는 안대환 한국이주노동재단 이사장과 문성주 한국세계유학생선교협의회(KOWSMA) 대표,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원장의 주제발표와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이영옥 다문화사회진흥원 대표는 인사말에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다문화인구는 3배 이상 증가, 200만 명으로 증가했고 이는 대한민국 인구의 4%에 해당하는 수치"라며 "양적 성장에 따른 질적 평가를 해보고 진정한 한국적 다문화정책을 논의하고 바람직한 모델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며 획일적 정책으로는 미흡한 보호의 사각지대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보다 국민 통합적이며 동시에 개별적 서비스가 가능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거주 이주노동자 인권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한 안대환 이사장은 실제 1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문제로 고용변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 열악한 숙식환경(컨테이너 기숙사), 도서지역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농축수산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 언어폭력, 성폭력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다문화가정 유학생자녀의 지원방안 모색'에 대해 문성주 대표는 국내 10만 명 이상의 국제학생 거주가 미치는 영향력과 국제 인재 확보를 위한 파견인력선발 조건, 국제화 정책 분석, 주요 국가의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등을 분석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내 거주 다문화가정 유학생 부부의 증가로 그 자녀들을 위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는 현실적으로 그들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다"며 "지역성을 기반으로 공급과 이용, 연계 및 협력 측면을 구분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지역교회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선교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동포 청소년 한국체류 현황과 교육'에 대해 곽재석 원장은 "여러 부류의 다문화집단 중에서도 가장 차별받는 집단이 65~70만 명에 달하는 중국 조선족이라면, 이들 중에서도 차별받는 집단이 바로 중국 조선족 청소년들"이라며 "지원 정책이 없고 편견과 차별 때문에 갈 곳 없는 중국동포 중도입국 차세대 청소년들이 노래방 도우미 등 불법취업이나 비행에 가까운 돈벌이의 유혹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다문화사회진흥원은 국내 다문화 집단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국사회에 바람직한 시민문화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됐다.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에게 음악을 통한 정서교육, 진로지도, 멘토링, 관련실무자 연수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이지희 기자

행사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기총

다문화 가족들에게 특별한 '성탄선물'

세기총, 크리스마스 앞두고…다문화 가족들에게 특별한 선물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시영 목사, 이하 세기총) 다문화위원회(위원장 정서영 목사)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다문화 가족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했다.

세기총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총회신학강당에서 사단법인 월드뷰티핸즈(이사장 장헌일, 회장 최에스더)와 함께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크리스마스 가족사진 촬영 및 뷰티서비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세기총 임원 및 몽골,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의 다문화 가족 80여 명과 뷰티서비스 봉사자 30명 등 약 1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세기총 다문화위원장 정서영 목사의 기도로 시작됐다.

행사는 참여 인원이 많아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됐고, 뷰티 분야 전문가들이 헤어미용,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으로 다문화 가족들을 섬겼다. 뷰티서비스를 마친 가족들은 사진 전문가들의 봉사로 전통의상과 평상복을 입고 사진촬영을 했다. 특히 부모님을 모시고 온 이들에게는 장수사진(영정사진)을 찍어주기도 했다. 이날 촬영된 사진은 액자와 달력으로 제작돼 다문화 가족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참석자들은 또 정서영 목사가 제공한 점심을 함께 하며 교제했고, 합동개혁총회와 비전코리아29, 생명나무숲교회, 총회신학원우회도 이날 행사를 후원 및 협찬했다.

한편 사단법인 월드뷰티핸즈는 국제뷰티구호개발 NGO로 다문화 가족들을 비롯해 탈북민, 노숙자,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들을 위한 뷰티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통해 자활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다.

세기총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는 "이번 행사가 다문화 가족들에게 또 다른 의미의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2회에 걸친 다문화가정 부모초청과 1회의 부부세미나 그리고 이날 다문화가정 뷰티서비스를 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섬김 사역의 지속적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신천지, '천국편지'명 이메일 공세 계속돼

한기총 향해… '한기총 소속 아니면 이단으로 매도' 주장

신천지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메일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13일에 발송된 '천국 편지'에서는 "한기총 소속 교단 사람들은 일제 시대에 일본 천황 신에게 절하고 찬양했다"며 "오늘날은 권세와 돈을 위해 한기총 회장 자리와 목사증을 돈으로 사고팔고, 모이면 싸우고 둘, 셋으로 갈라지고, 한기총 소속이 아니면 이단으로 매도하고 저주한다"고 주장했다.

또 "목사가 신학교를 나와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말씀이 없고, 그리하여 교회마다 생명이 되는 말씀이 없다"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거짓말을 지어내(계 22:15) 성도들에게 먹인다"고 했다.

메일에서는 자신들을 '신천지'라 칭하면서 "한기총과 신천지의 교리 비교를 통해, 한기총의 거짓 증거 100가지에 대한 참 증거를 함으로 진리를 알게 했다"며 "한데 저들은 기독교 신문과 카페 등에서 기독교와 신천지의 교리 비교라며 거짓말을 지어내 근거 없는 엉터리 비교를 했다"고 밝혔다.

자신들에 대해선 "같은 성경으로 신앙하는 사람은 같은 기독교인으로, 신천지는 선천 기독교가 부패했을 때 이를 끝내고(계 6장) 다시 창조한 새 하늘 새 땅(계 21장)"이라며 "성경이 다른 것이 아니다. 한기총의 주석 책은 성경이 아니고, 자의적 해설인 거짓말 책으로, 거짓 목자의 거짓말 때문에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인터넷 방송채널인 유투브에 '교리비교 영상'을 개설하고 해당 방송 시청을 권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경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했고(갈 1:8~9), 계시록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재앙을 받고 거룩한 성에 참예함에서 제한다고 기록돼 있다(계22:18~19)"며 "이같이 성경과 다른 거짓증거를 하는 곳에는 천국과 복이 없고 지옥과 저주만이 있을뿐"이라는 말로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었다.

17일 발송 메일 '성경이 말한 이단'에서는 "사상이 다른 거짓 선지자를 이단이라고 한다"며 오히려 "이단의 행동은 하나님이 세우신 인도자를 파하고 자기가 주관자가 되기 위해 거짓말과 불평불만으로 대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내심을 받은 사자(대언자)를 대적하는 자는 대적"이라며 "이래도 아부하고 입을 맞춰 우상숭배를 하겠는가? 약속의 말씀을 지키라. 거짓말을 지어낸 자도 회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대웅 기자

종교개혁, 각자도생, 인구절벽, 선교적 교회

문화선교연구원(원장 백광훈 교수, 이하 문선연)에서 '2017년 사회문화 전망 및 문화선교 트렌드'를 발표했다.

먼저 2017년 사회문화 전망으로는 '각자도생의 사회', '민주주의 2.0의 진화, 민심은 어디로?', '뭣이 중헌디? 진짜 중요한 것을 찾아서', 'AI비서 시대, 구술문화의 회복', '따로 또 같이, 1인가구 시대의 관계 맺기' 등 5가지를 선정했다.

이어 교계 전망으로는 '마침내, 종교개혁 500주년', '교회의 갈등관리 능력, 시험대에 오르다', '이제는 생존이다', '인구절벽 앞에 선 교회', '대안은 선교적 교회?!' 등 5가지를 꼽았다.

문선연에서는 2017년 사회문화와 교계를 반영하는 주요 이슈로 '생존'과 갈등'을 꼽았다. 경제의 비상상황이 예측되는 가운데 생존에 대한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가 계속되는 속에서, 대선을 치르면서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1인가구의 증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시대의 변화가 요청되지만, 기존 한국 사회를 지탱해 온 가치 및 관념들과 이것이 혼재하면서 그에 따른 혼란도 예상된다는 것이다.

교회 역시 '생존'과 '갈등'의 여파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문선연은 예측했다. 이들은 "경제위기와 인구절벽, 가속화되는 교회의 위기로 앞으로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생존에 더욱 위기를 절감할 것이고, 대선을 전후로 일어날 이념 갈등과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른 가치관 갈등, 리더십 교체로 일어날 내홍은 교회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선교적 교회'를 말하겠지만, 진정한 선교적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더 깊은 숙고와 책임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도 2017년 교계의 중요한 이슈는 종교개혁 500주년으로, 이와 관련된 각종 행사와 논의들이 무성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는 의지"이라고 덧붙였다.

이대웅 기자

LA동부, 팜스프링스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교회 ,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목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이창민 담임목사
L.A. 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열린예배 오후 2:00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 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7:00 (토)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 (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주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사랑의빛선교교회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30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새벽 예마 기도회 오전 5:30(월~금)
EM/YOUTH 예배 오후 1:30 금요예마기도회 오후 7:45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434) 229-6597 / cmc-12.com / yesuin12@gmail.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818)363-5887
LA예배처소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3460 Wilshire Blvd, Ste 700, LA, CA 90010
Tel: (213) 232-3163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Christmas

성탄을 축하합니다

얼바인 온누리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등부 오전9:15
고등부 오전11:30
한어부 오전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권혁빈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이춘준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조응철 담임목사

새창조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nglish Ministry 11:20 AM
E.M Bible Study 1:30 PM
주중 새벽 예배/ 오전 5:30
토요 새벽 예배/ 오전 6:30
금요 예배 / 오후 7:30

23814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212-6369
김관중 담임목사

하늘영광교회

주일예배 오전 10:20
주일학교 오전 10:20
Youth 그룹 오후 12:50
토요비전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요성경공부 오후 6:00

8300 Valley View st., Buena Park, CA 90620
T: (213)598-6878
E-mail:ckhjesus@gmail.com
담임목사 차권희

그라나다힐 한인교회

행복한 3세대 가족 공동체

주일예배 12:30PM
수요예배 7:00PM
매일새벽예배 5:30AM
금요기도회 8:00PM

10341 Woodley Ave., Granada Hills, CA 91344
TEL (818) 360-1339 www.greennote.org
백동흠 담임목사

구세군나성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영어예배 주일 오전 10:30
어린이예배 주일오전 11:2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금요기도회 금 저녁 7:30

933 S. Hoover St., Los Angeles, CA90006
T. (213)480-0714
이주철 담임사관

토랜스선한목자교회

1부 한어예배	주일 8:00AM
2부 한어예배	주일 11:00AM
3부 EM	주일 9:00AM
금요 찬양예배	금요일 7:30PM
새벽 기도회	월~토 6:00AM

2531 West 237th Street, Torrance, CA 90505
T.(310)326-2001/310-989-4381
김현수 담임목사

십자가영성원

공동대표
이명수 김재홍 목사

십자가의 길
"십자가 지고
비아돌로로사의 길을
체험케 하소서"

사우스베이 목사회

회장 **윤 목** 목사
(한인 소망교회)

시카고벧엘장로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아동부/중고등부	오전 11:0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저녁 8:00
월~토 새벽예배	오전 6:00

399 N. Quentin Rd. Palatine, IL 60067
T. (773)545-2222
최병수 담임목사

한소망교회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2869 W. Pico Blvd., LA,CA 90006
T. (213) 219-7500
지영환 담임목사

주님의교회

주일예배 정오 1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어린이 & Youth 정오 12:00
금요일 오후 7:30
새벽 기도 5:30(화~금) 오전 6:30(토)

3300 West St. Somis, CA 93066
T. (805) 208-8242
오정택 담임목사

샬롬장애인선교회

"지역사회 속에 소외된 장애인들을 찾아내어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2869 W. Pico Blvd.
Los Angeles, CA90006
Tel: (323)731-7724

www.shalommin.com

박모세 목사

L.A 기쁨의 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주일예배 2부	오전 10시 30분
주일학교	오전 10시 30분
청소년예배	오전 10시 30분
English Service	오후 12시 30분
금요예배	오후 7시 30분
새벽예배	오전 5시 30분 (월~토)

www.thejoylife.org

3938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351-9975 (Fax겸용) e-mail: cometojx@gmail.com
이희문 담임목사

벤츄라교역자협의회

회장 : 김민영 목사
총무 : 승광철 목사

회원교회
- 벤츄라 감리교회(김민영목사)
- 벤츄라 열린문장로교회(김경욱 목사)
- 벤츄라카운티 장로교회(이정구 목사)
- 새생명 교회(승광철 목사)
- 씨미밸리 한인교회(반채근 목사)
- 옥스나드 한인교회(김진구 목사)
- 옥스나드 연합감리교회(남재헌 목사)
- 주님의 교회(오정택 목사)
-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조인 목사)
- 카마리오 커뮤니티한인교회(권혁래 목사)
- 카라리오 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영 목사)

주님세운교회

"기쁜 성탄과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삶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엡5:8-9)

박성규 담임목사

교회모임 안내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EM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주소 및 전화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LA 사랑의교회

1. 평신도를 깨우는 교회
2. 이민 2세를 책임지는 교회
3. 이민가정을 치료하는 교회
4.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예배시간 안내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 예배 오후 2:22
EM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오전 6:20(토)
주일 - 버질중학교 / 토요새벽 -1가와 버몬트 코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A, CA 90057

주소 및 전화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미주기독한의사협회

Christian Asian Medicine & Acupuncture Association of America

명예이사장 : 엄한광 이사장 : 박동우
회 장 : 정종오 박사
부회장 : 신정식, 조행식, 이써니, 오정국
총 무 : 김샤론, 김창근 부총무 : 김지윤
회 계 : 김윤아, 윤헨리 부회계 : 두형옥
음악부장 : 고 대니엘 반주자 : 쥬디한
섭외부장 : 고대훈
헌금위원 : 이교윤, 고대훈, 임양택, 이혜원
감 사 : 백광세, 임양택

9대 회장 : 정종오 박사
(약손한의원 원장)

- 매월 2째 주일 오후 5시, 예배 및 무료 4시간 보수교육 실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 재학생 참석 바랍니다.)
- 문의 T.(213)500-6393 회장, 703-8541 총무

축성탄 기쁘다 구주 오셨네!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주님의 빛 교회

주님의 빛 교회 사역 목표
1. 예배를 통한 경배와 교제
2. 전도를 통한 영혼의 구원
3. 제자 훈련을 통한 성숙
4. 성경적 상담을 통한 치유
5. 가정 교회를 통한 사랑의 실천

예배시간 안내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청년 예배	EM 오후 1:30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수요 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Christmas 성탄을 축하합니다

축성탄 인랜드 온누리교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배시간 안내

1부예배	8:00AM
2부예배	9:45AM
3부예배	11:45AM
청년	1:45PM
영어	9:45AM
장애우	9:45AM, 11:45AM
수요예배	7:45PM
새벽기도 (월-토)	5:30AM
금요기도	8:00PM
청년 금요	8:00PM

김태형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0000 Foothill Blvd. Lake View Terrace, Ca 91342
T.(818)834-7000
www.anconnuri.com

GLOBAL MISSION CHURCH

글로발선교교회

글로발선교교회의 사명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사역2기 3대 비전
"The Church Vision" (1세들을 위한 비전)
"The Church within Church Vision" (차세대를 위한 비전)
"The Church Planting Vison" (사명을 위한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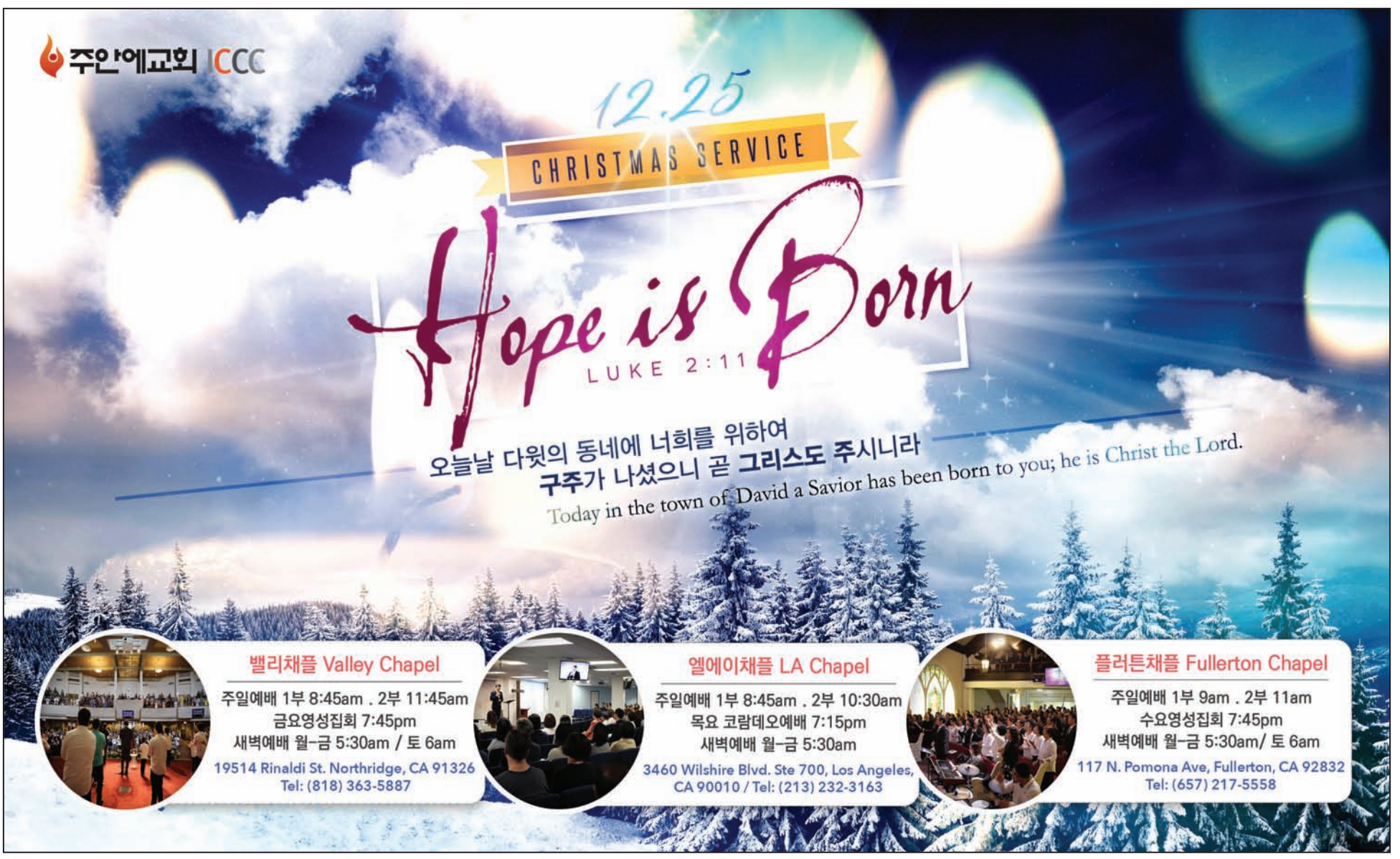
김지성 담임목사

예배시간 안내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월-금)
오전 6:00 (토)

축성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소 및 전화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 396-4441 / F. (909) 396-1777
www.igmc.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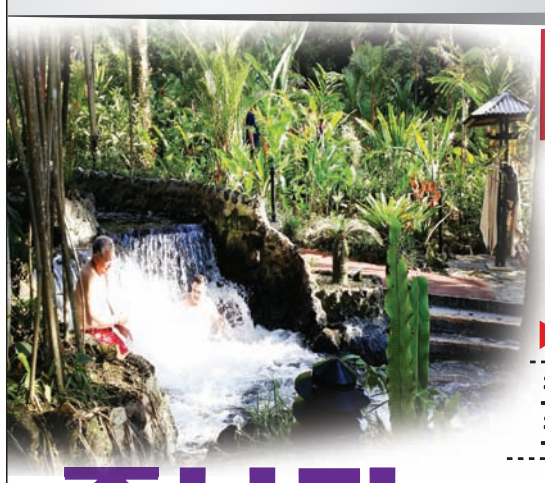


1등 아메리카 대륙 푸른투어LA cst# 212654040 PRT Tour & Consulting

문의전화 (213)739-2222 인터넷예약 www.PRTTOUR.com

뉴저지 본사 (201)313-0899 725 Grand Ave #305 Ridgefield, NJ 07657
플러싱 지사 (718)928-3333 154-08 Northern Blvd #2B Flushing, NY 11354
로스엔젤레스 지사 (213)739-2222 3170 W. Olympic Blvd. #A Los Angeles, CA 90006
토론토 지사 (647)686-6000 5467 Yonge Street, Suite 2B Toronto, ON. M2N 5S1
서울 지사 (02)739-0890 Doosan We've 58 #1238 Jongno-gu, Seoul

여행설계사 데비드강의 여행이야기 AM 1650 매주 화 1:30pm



1 3 Big Event
1.3 스페셜은 1월 부터 3월까지 스페셜 특가로 모십니다!

청정 코스타리카
4박5일 $1,399 (항공포함)
▶ 특별출발 : 1/23 (4명 이상 출발가능 그외)
코스타리카 4박5일 $1,030+항공
코스타리카 5박6일 $1,150+항공

중남미 스페셜

치첸이사/칸쿤 3박4일
▶ 1/16 $1,199 (항공포함)
5성급 옴니호텔과 함께하는 럭셔리 칸쿤 여행의 정수!

전설의 잉카문명 페루 5박6일
▶ 특별출발 : 1/9,30 2/13,27, 3/13,27
$2,099 리마쉐라톤 호텔 숙박
1 페루 특전 - 세계 신 7대 불가사의 중 2곳 방문 [-잉카 유적지 마추픽추, - 나스카 지상화 그림]
2 경이의 공중도시 마추픽추와 나스카라인 경비행기
3 고대문명의 발상지! 페루의 가장 유수한 도시 쿠스코
4 천혜의 경관! 오아시스 휴양지 이까사막 탐방

2월~4월까지 스페셜 쿠바 2박3일 $780+항공
▶ 수시출발 (비수기 기준요금/2명이상 수시출발/그외 날짜 문의)
3박4일 $1,325+항공 4박5일 $1,520+항공

정열의 중남미 3박4일 $1,299
남미의 4대 명소 - 이과수 폭포, 아마존 정글, 공중도시 마추픽추, 신비의 지상화 나스카 라인
정열의 남미 페루/이과수 폭포/거대 예수상 10박11일 $4,699 ▶ 1/13, 1/19
로스카보스 3박4일 $645 ▶ 문의
브라질 / 아르헨티나 6박7일 $3,499 ▶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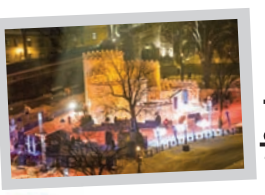
$100 상당의 3대 옵션 포함
1) 자유의 여신상
2)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입장료
3) 안개속의 숙녀호 탑승

맘모스, 리노 멀리까지 갈 필요없이 하루에~
마운틴 하이 스키 리조트 당일 스키 여행
① 리프트권+교통 $99
② 리프트권only $74 → $45
▶ 12/23,24,25,26,30 1/1,2,3
- 마운틴 하이 스키장 내에서 장비 렌탈, 강습 가능
- 오전 출발~종일 내내 스키를 즐기세요
"푸른투어의 특별한 겨울선물"

크리스마스
특선 1 레인보우 브릿지 2박3일 $345 ▶12월 24일, 31일
① '레인보우 브릿지 유람선' 포함($150 상당)
특선 2 세도나 / 미티어 크레이터 2박3일 $249 ▶12월 23일, 31일
① 세계 최대 운석분화구, 미티어 크레이터
② '스페셜 세도나'를 가족과 연인과 함께 하세요~
특선 3 벨라지오 숙박 2박3일 $345 ▶12월 24일
① 라스베가스 최고 호텔 '벨라지오 숙박'
② 가족과 연인과 여유있게 크리스마스를 즐기세요

연말연시
12월 23/31일 (금/토)
세도나 / 미티어 크레이터 2박 3일 $249
엔텔로프 / 모뉴멘트 밸리 3박 4일 $429
12월 24/31일 (토)
레인보우 브릿지 2박 3일 $345
라스베가스 자유여행 2박 3일 $345
그랜드 캐년 3박 4일 $389
스카이 워크 / 그랜드 캐년 3박 4일 $389
나파벨리 / 레드우드 2박3일 $299
12월 24/25/31일 (토/일/토)
자슈아 / 팜스프링 온천 1박 2일 $149
데스밸리 / 라스베가스 1박 2일 $179
12월 27일 / 1월 3일 (화)
미서부 3박 4일 $389
(자이언/브라이스/엔텔로프/그랜드 캐년)

서부 여행사 유일하게 타사위탁 아닌 푸른이 직접행사 합니다.
푸른 유일 $100상당의 3대 옵션 포함 - 필히 타사 비교 요망



2017년 퀘벡 환상의 아이스호텔 윈터 카니발
4박 5일 $899 ▶ 1/28
[숙박/식사/입장료 등 완전포함]
- 북미의 파리 몬트리올의 노틀담 성당과 자끄까르띠에 광장
- 유네스코 문화유산 퀘벡의 낭만풍경을 찾다
- 윈터카니발 인터내셔널 아이스조각축제 관람
- 북미 유일의 '아이스 호텔' 관람
- 퀘벡의 도심을 가로지르는 개 썰매 레이스 관람

푸른투어의 자존심~ 명품 IVY 리그
5박 6일 브라운/예일/하버드/MIT/프린스턴 유펜/존스홉킨스/콜롬비아 ▶매주 화/토 $1,090
7박 8일 브라운/예일/하버드/MIT/프린스턴 유펜/콜롬비아(나이아가라) ▶매주 수 $1,160
① 재학생 투어 총 3회 〈예일/하버드/유펜〉 ② IVY 전문 가이드와 함께 캠퍼스 투어 ③ 3명 이상 출발

파격특가! 미동부
실속 미동부 5일 (뉴욕/워싱턴 DC/나이아가라) ▶매주 수/토 $799 (항공포함)
미동부/천섬 6일 (미동부 5일+토론토/천섬) ▶매주 수/토 $899 (항공포함)
미동부/보스턴 7일 (미동부 5일+보스턴/뉴포트) ▶매주 수/토 $1,049 (항공포함)
미동부/천섬/보스턴 8일 (미동부/천섬 6일+보스턴/뉴포트) ▶매주 수/토 $1,099 (항공포함)
미동부/캐나다 8일 (미동부/천섬 6일+몬트리올, 레이크조지, 퀘벡) ▶매주 수/토 $1,099 (항공포함)
미동부/천섬/보스턴/캐나다 10일 (미동부/캐나다 8일+보스턴/뉴포트) ▶매주 수/토 $1,299 (항공포함)

미서부 매주 화요일 벨라지오 호텔
3대 캐년 4일 $389
3대 캐년 +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7일 $689
▶ 매주 월 그랜드 캐년 / 브라이스 캐년 / 자이언 캐년
4대 캐년 (벨라지오) 4일 $389
4대 캐년 +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7일 $689
▶ 4일 매주 화 - 7일 매주 화/토 3대 캐년+앤텔로프 캐년
그랜드 캐년 / 라스베가스 (벨라지오) 3일 $299
▶ 매주 화/토
요세미티 / 샌프란시스코 4일 $389
▶ 매주 월/목/금/토
미서부 실속 여행 (벨라지오) 6일 $599
▶ 매주 화/토

LA 일일투어
▶월/수/금 $59
(50인승 전용차량, 한인가이드, 중식불포함)
올베라거리/다운타운/다저스스타디움/그리피스천문대/헐리웃거리/로데오거리(차창관광)/산타모니카해변 파머스 마켓/그로브 몰 등

"9대 캐년 완전정복" 그랜드 써클
6박 7일 $829 ▶ 1/27 2/10, 24 3/10, 24 4/14, 21 5/5,12,19

"특급 벨라지오" 미서부 4대 캐년
3박 4일 $389 ▶ 매주 화 출발
자이언 / 브라이스 / 앤텔로프 / 그랜드 캐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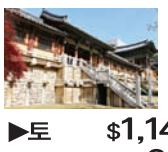
라스베가스 벨라지오 호텔숙박
3일 그랜드캐년/라스베가스 ▶매주 화 출발 $299
4일 실속 4대 캐년 ▶매주 화 출발 $389
6일 실속 미서부 일주 ▶매주 화/토 출발 $599
7일 4대캐년+요세미티/샌프시스코 ▶매주 화/토 출발 $689

오로라 알래스카 기차여행 5일
$1,300 +항공 ▶목요일
1 설국에서 즐기는 노천온천
2 '설국열차'타고 알래스카 횡단

푸른투어는 미국 서부, 동부, 캐나다 모든 여행을 직접 진행합니다.

e-world 모국방문 및 동남아 여행

Imagine your Korea e-world
아름다운 우리강산을 동서남북 누비다!
한국기행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상품구매 가능!



전국일주 7일 ▶토 $1,140+항공
서남부 4일 ▶토 $610+항공
남동부 4일 ▶화 $610+항공
한려수도 3일 ▶월/금 $430+항공
한국 기행 상품은 비수기 기준이며, 영어가이드 진행 가능함

최고의 선택 퍼펙트 건강검진
녹십자 퍼펙트 골드 건강검진이란?
인천공항 도착 + 리무진서비스 + 프로비스타 호텔 앞 도착 숙발 +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완전 시스템입니다.
녹십자 퍼펙트 건강검진
건강검진+리무진+강남소재 호텔숙박
퍼펙트 플래티넘 검진 $865
핵의학 검진, 특수장비 검사, 부인과 검사(여성) 호르몬 검사, 위/대장 수면 내시경
퍼펙트 골드 검진 $550 건강검진만 $430
플러스 퍼펙트 건강검진+수면대장내시경

대한민국 대표관광지 구석구석, 가장 완벽한, 진정한 힐링과 특별한 혜택을 만나세요.
제주 2박 3일 초특급 호텔과 함께하는 럭셔리 제주여행
"부영리조트특급호텔개장기념" $300+항공
서귀포 중문단지 위치 롯데특급호텔 $350+항공
서귀포 연동 위치 롯데시티제주 $239+항공
옵션 포함
천년의 제국 애! 고구려 공연과 칠십리 유람선 탑승 포함~

일본
북해도 北海道 7일 온천+동경까지
▶ 2/15 $2,999
1 노팁! 노옵션! 항공포함
2 샷뽀로 특식 3대게 무한리필!

동남아 / 중국
북경 만리장성 3박4일 $258+항공
상해 3박4일 $352+항공
홍콩 3박4일 $390+항공
방콕/파타야 3박5일 $290+항공

1등 아메리카 대륙 푸른투어LA PRT Tour & Consulting cst# 212654040
213.739.2222
인터넷예약 www.PRTTOUR.com
무료픽업 가능 : 가든그로브/토렌스/세리토스/가디나/다이아몬드 바
광고상의 모든 컨디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항공상품은 비수기 기준으로 성수기시요금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트럭 한 대가 크리스마스 상점으로 돌진해 사상자가 발생했다. ⓒCNN 보도화면 캡쳐

IS, 獨 베를린 트럭 참사 테러 주장

사상자 최소 12명…메르켈 독일 총리, '테러'로 규정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가 12월 19일 독일 베를린에서 발생한 트럭 돌진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12월 20일(현지시간) IS는 이마크 통신을 통해 "(IS 격퇴) 국제연맹 참가국 국민들을 표적으로 삼으라는 요청으로 IS의 한 전사가 독일 베를린에서 작전에 나섰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이번 성명에는 테러 행위에 나선 이들의 신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테러로 21일 현재 기준 최소한 12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쳤다.

베를린소방서의 슈벤 걸링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독일에서 발생한 가장 치명적인 공격 중 하나"라면서 "모든 상황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지었다.

최근 프랑스와 벨기에 뿐 아니라 독일에서도 테러 공격이 잇따라 발생했고, IS가 자신들의 소행을 자처한 사례들이 많았다.

美주류 언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이번 사건은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베를린에서 일어난 끔찍한 테러 공격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한다"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무고한 시민들이 거리에서 실해됐다"고 밝혔다. 그는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를 비롯한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전 세계에서 지하드를 펼치며 기독교인들을 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테러범과 이들의 지역적, 세계적 네트워크를 반드시 지구 상에서 퇴치해야 한다. 우리는 자유를 사랑하는 협력자들과 이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트럼프 행정부 기독교인 공직자 5명

부통령 당선인 비롯해 교육부 · 법무부 장관 내정자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다양한 교단 출신의 헌신된 기독교인들도 내각 조각에 포함시켜 주목된다.

◈**부통령 당선인 마이크 펜스(Mike Pence) 인디애나 주지사.** 마이크 펜스 주지사는 다른 어느 정치인보다 자신의 신앙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다. 공직에 있는 몸이지만, 펜스 주지사는 스스로를 '기독교인, 보수파, 공화당원'이라고 소개한다.

◈**벳시 디보스(Betsy DeVos) 교육부 장관 내정자.** 자선사업가 출신의 디보스 내정자는 미국의 교육 체계를 바꾸는 사명을 신앙의 또 다른 사역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1년 폴리티코의 보도에 의하면, 디보스는 기독교 자선사업가들이 모인 집회에 남편 리차드와 함께 연설자로 참여해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있어서 문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여기에 교육의 영역도 포함돼 있었다.

◈**제프 세션스(Jeff Sessions) 법무부 장관 내정자.** 제프 세션스 앨러배마주 상원의원은 가족들이 함께 출석하는 애쉬랜드플레이스 연합감리교회에서 평신도 지도자,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해 왔다. 그는 교회 행정이사회의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앨러배마감리교 총회의 총대로 활동해왔다. 그는 이민 문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로 평가를 받았으며, 이슬람 국가 출신의 이민자들에 대한 엄격한 검열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벤 카슨(Ben Carson) 주택 · 도시개발부 장관 내정자.** 카슨 내정자는 싱글맘 밑에서 자라 명문인 예일대학을 졸업한 뒤 미시간 의대를 거쳐 볼티모어 존스홉킨스 병원에서 최연소 소아신경과장이 된 입지전적 인물로 세계 최초로 머리가 붙은 샴쌍둥이 분리수술에 성공하며 명성을 얻었다. 2008년 PBS와의 인터뷰에서 카슨은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을 때 신앙이 깊어졌다"고 간증한 바 있다.

◈**릭 페리(Rick Perry) 에너지부 장관 내정자.** 침례교회와 감리교회에서 성장해 온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는 2014년 재세례를 받았다. 그는 2011년 6월 페리 전 주지사는 '응답'(The Response)이라는 주제로 열린 금식 기도 모임을 조직하고 다른 주의 주시자들을 초청하기도 했다.

강혜진 기자

영국성공회, 동성결혼 반대 입장 고수할 듯

독신 동성애자에게만 사제직 허용하는 법은 폐지될 수도

내년 2월 영국성공회 총회를 앞두고 동성결혼에 대한 가르침과 관련해 어떤 의미심장한 변화도 아직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英크리스천투데이는 "내년 2월 열리는 총회 일정표가 공개된 가운데, 사제들이 성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시간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법 개정 등 중요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3박 4일의 총회 기간 동안, 지난 2년에 걸쳐 성 이슈를 다뤄온 토의 그룹이 90분간 토론을 진행한 후, 그룹 활동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한 번 주어져 있다. 총대들은 2년간 동성애로 생긴 교단 내 깊은 분열을 치유하려는 시도 속에서 모든 개교회들과 개별적인 대화를 진행했었다.

英크리스천투데이는 "이번 총회에서는 교회법 개정을 위한 회의 시간은 따로 없으며, 그동안 사제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법 개정을 위해서는 영국성공회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교단, 성직자의회, 평신도의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한다.

가능한 변화 중 하나는 독신으로 사는 동성애자들에게만 사제직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법이 폐기되는 것이다.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영국성공회는 동성결혼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성적 취향이 차별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영국평등법에 근거해 동성애자도 주교로 임명하고 있다.

단 현재 실질적으로 동성애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아닌, 독신을 유지하고 있는 동성애자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사제들은 동성애 사제들이 '반드시 독신으로 살겠다'고 서약하지 않는다고 해도, 지속적인 사제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나이지리아의 조사이아 이도우-피론(Josiah Idowu-Fearon) 대주교가 회의 마지막날 30분 간 연설을 할 계획이다. 그녀는 오랫동안 동성결혼 금지법을 바꾸기 위한 어떤 시도도 반대해 온 인물이다.

강혜진 기자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대학청년부/E-college 주일 2:00PM
제자훈련/사역훈련 화~목 7:30PM
새벽예배 월~금 5:30AM 토 6:30AM
NEXT한국학교 토 9:30AM~1:00PM
NEXT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김일영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I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www.nextsarang.com

주일예배 (1부) 10:00am (2부) 1:3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수요돌파기도회 9:00pm
금요온전철야예배 8:00pm - (다음날) 7:00am
토요청년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 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3부찬양예배 오후 2:30
평일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셀가족 예배 : 매월 2째주 주일 오후 5:30분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벧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11:00
2부예배 오전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토요새벽 오전 6:00 본당
금요공부 저녁 8:00 본당
허귀암 담임목사
놀웍연합감리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CA 90650
T.(562)802-4959 C.(714)308-730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11:00a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11:30
금요예배 오후8시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EM주일 오전11:30
교육부 오전11:30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8:30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토 새벽 6:20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이 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본어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토요한글학교, 애프터스쿨
P-kinder(Korean) 오전 11:00
Children(1-6) 오전 11:00
Youth(7-12) 오전 11:00
College 오후 1:00
이동준 담임목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등부 오전9:15
고등부 오전11:30
한어부 오전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홍성준 담임목사
얼바인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FAME예배 오전 11:30 (장년 영어)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박경호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9:00 &10:30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예배 오후 7:30
김민재 담임목사
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 (714)788-3677 / www.yec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1부예배 오전8:15
주일2부예배 오전10:00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영어주일예배 오전10:00
유년부,초등부예배 오전11:3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11:30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5:30, 토,주일 오전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수요기도회 : 오후 8:00
새벽기도 :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요영성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주일 섬김이 예배 : 오전 9:00a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토요일 오전 6: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온라인 쇼핑 비지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중고차 황제 김기형

Family 자동차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최고가 매입 $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한의사랑
한의사 Zo'e 조애
Tel:(213)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8th St. #208, LA, CA 90057(8th& Lake St.) (월수토 예약 필수)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CD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환영배너 스텐드포함 $65 (물티슈를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탑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 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섬기시는 사역과 사업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junim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사인(실내외,차량) 제작, 판촉물인쇄 전문
junimmedia.com 개척교회 및 신학교, 선교단체를 위한 특별할인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으니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축제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물용시디앨범을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전도대상자 또는 방문자에게 교회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1.전도용품 세일 ✦ 전도물티슈 ✦ ✦ 볼펜 ✦ 전도용물티슈 1,000set($380) 고급향균 물티슈! 1set에 10팩가 들어 있습니다. ✦ 전도엽서 ✦ 각종행사용품 및 전도용품, 선물용품이 구비되어 있으니 웹사이트를 방문하시어 더욱 다양한 샘플과 할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 전도용 설교시디 소량도 제작가능합니다.
3. 새가족 및 방문자 선물용 찬양, 설교시디앨범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
5. 환영배너 (스텐드 포함 $65) Free Shipping!!!

시티보험 자회사 CA Lic. #0156071
실버시티보험
메디케어 올해 65세 되십니까?
메디케어 신규 보험 가입&변경기간 10월 15일~12월 7일
■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Part C) ■ 메디케어/메디칼 (변경기간 상관없음)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 메디커넥트 등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213-321-0302 Connie Kim(김 경미)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왕만두 (10개 $10)
팥찐빵
부추교자 (50개 $20)
김치교자
무료배달 ($40이상 주문시)
손으로 정성껏 만듭니다.
인하손만두 626.731.7864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S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발가락 ✓ 마디관절 {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우울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불임증 (자궁혹, 하혈) • 만성두통, 요통
• TMJ 턱관절 장애 *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3달분 $60
배 빼는 숙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한국의 맛
우리반찬
KOREAN FOOD
THE BEAUTY OF KOREAN FOOD
최고의 기회 NO MSG
웰빙푸드 전문점
선별된 좋은재료, 최고요리 전문가의 정성어린 손길로 모십니다.
품격있는 캐더링
웨딩 캐더링
교회 행사 캐더링
돌잔치 캐더링
회갑잔치 캐더링
생일상 캐더링
■ 스페셜 다이어트 푸드
■ 자연의 맛 그대로 조리된 각종 반찬
■ 전통 찜요리 (궁중찜, 갈비찜, 코다리찜, 조기찜, 묵은지 등갈비찜)
■ 웰빙 김밥
■ 김치류
연말 연시 캐더링 주문 환영
Tel(213)388-0022
356 S. Western Ave. #106, Los Angeles, CA 90020
찾아오시는 길 Western Ave 4Th

• 최승목 칼럼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 의미

최 승 목 목사
팜스프링스감리교회

이번 미국 대선에서 주요 언론들이 모두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될 것을 예견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트럼프가 당선됐다.

이러한 대선 결과와 관련, 필자가 경험한 미국의 일반 서민들의 삶과 신앙을 바탕으로 미국 저변에 깔려 있는 민심과 신앙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한다.

첫째, 미국의 보수신앙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수가 여성 지도자를 용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필자는 2004년 미국으로 이민 와 미국인 교회 두 곳을 빌려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다. 처음 빌린 교회가 워싱턴 DC 근교 시골에 있는 교회로, Bible Baptist Church였다. 이 교회는 아주 보수적인 교회였다. 영어 성경 중에서 가장 오래된 버전인 KJV(King James Version)을 사용하고, 여성은 바지를 입지 못하고 짧은 치마도 안 되고 긴치마만 입을 수 있다. 또한 여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두 번째로 필자가 빌려 사용한 미국인 교회는 미국 전역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Calvary Chapel이었다. 이 교단의 컨퍼런스에도 해마다 참석하였다. 이 교단이 처음 시작된 교회는 척 스미스 목사가 히피족들을 모아서 성경공부를 하고 현대 음악을 찬양으로 불러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룬 미국의 대표적인 교단이다. 이 교회는 상당히 서민적이고, 자유분방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하라는 구절을 근거로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으며, 여자가 남자를 지도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미국의 보수적인 많은 교단들, 침례교를 비롯한 보수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펜실베니아에 모여살고 있는 메노나이트 집단과 아미쉬 집단들도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성경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들에게 여성지도자는 생각할 수 없다. 그곳을 수차례 방문, 기억에 강력히 남는 것은 그곳에서 가장 어른인 남성이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가진 나라로 다양한 문화와 신앙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외부로 알려지는 미국은 미국의 주요 큰 도시의 모습들이 마치 미국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왜곡되어 보도 되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필자는 이미 민주당 대선 후보로 여성 후보자가 된 것에 대해 쉽지 않은 게임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 필자는 한국에서 여성 목회자 밑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여성 지도자에 대한 반감이나 불편함은 없었지만, 미국으로 이민와서 필자가 보필했었던 여성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조차도 미국인 목사들과 사모들이 반대를 했으니, 미국 사회가 속으로는 얼마나 여성에 대한 인식이 불평등하게 차별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이것은 금번 백인 여성들 조차도 지난 대선에 비해 공화당의 트럼프를 더 많이 찍었다는 것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미국에서 여성이 투표권을 갖게 된 것이 역사적으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둘째, 트럼프의 막말과 여성폄하 황당한 발언들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를 선택할 수 있나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일반인들 중 다수는 힐러리가 서슴없는 거짓말을 하였다는 분노가 있었다. 즉 막말과 거짓말에 대한 선택의 구도로 선거가 진행돼 가고 있었다. 막말과 여성폄하, 인종차별적인 표현들은 유권자들을 유쾌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힐러리의 이메일 사건에 대한 거짓말은 그녀가 정직하지 않다는 이미지를 강하게 주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신용사회로 구축되어 있다. 믿음을 근거로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과 신용에 따라 거래가 성사 되는 곳이다. 그동안 성실하게 융자를 갚았는가를 보고 집도 구입하고 자동차도 구입한다. 미국의 모든 사회구조가 계약에 의한 것으로 서로간의 약속을 성실히 지켰는가가 매우 중요하며, 그에 위반 된다고 생각하면 소송을 하기로 유명한 곳이 바로 미국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내가 당선이 되면 힐러리를 구속시킨다 했을 때 열광하는 지지자들이 적지 않았고, 미국 여러 곳에서 "힐러리를 감옥에"라는 피켓과 빌보드가 설치 되었다. 닉슨 대통령을 탄핵시킨 워터게이트 사건은 불법 감찰도 문제지만 그 사건에 대한 거짓말이 탄핵의 큰 요인이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셋째, Rust Belt의 분노이다. 이번에 트럼프가 휩쓴 곳이 Bible Belt와 Rust Belt이다.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지역들과 산업 경제가 마비된 지역에서 당선이 결정되었다. 그런데 사실 러스트 벨트는 강성 노동조합이 활발한 곳으로 전통 민주주의 텃밭이었다. 그곳은 본래 미국 제조업의 메카였던 곳으로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미 북부와 중서부 지역을 가리키는 곳이다. 적어도 100년간 미국의 산업을 주도했던 그곳이 지금은 슬럼가로 변해버렸다. 말 그대로 곳곳의 산업 현장이 녹슬어 버려 폐허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에 따른 미국 노동자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여기에는 신흥경제 부흥국 중국과 한국 그리고 멕시코와 더불어 일본까지 미국 경제에 피해를 주고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게 있다.

넷째, 복음주의 신앙층들의 결집을 들수 있다. 이부분을 많은 언론들이 간과하는 것 같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기독교적인 신앙과 사상을 가지고 있다. 복음주의 81%가 그를 지지 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복음주의 계열이 아닌 이들도 적지 않게 영향을 받았으리라 본다. 청교도 102명이 시작한 나라가 미국이다. 복음주의 계열에 잘 알려진 존 맥아더 목사는 투표 이틀 전 그의 설교에서 낙태 반대, 동성애를 지지하는 민주당을 지지할 수 없다고 설교했다. 그의 영향력을 생각할 때 왜 투표에 영향이 없었겠는가? 요즘은 미디어의 발달로 그의 영향력이 지역을 넘어서고 있다. 소위 복음주의 근본주의 보수신앙을 고수하는 사람들이라면 대다수 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프랭클린 그레이엄, 빌리 그레이엄의 아들인 그 역시 일찍이 트럼프를 지지하였다.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결집하는 것을 간과한 것이었다.

다섯 째, 언론 편향의 반 작용이 있었다고 본다. 금번 미국 언론은 트럼프에 대해서 상당히 편파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요즘 SNS의 발달로 CNN의 편파성에 대한 왜곡이 널리 퍼지게 된 것도 힐러리의 패배 요인 중 한 요인으로 보여진다. CNN의 대표 앵커인 앤더슨 쿠퍼슨(Anderson Coopers)은 힐러리와 트럼프의 양자토론에서 트럼프의 발언을 두 배 가까이 저지한 것은 차지하고도, 대놓고 5살 어린아이 같다고 하거나, 그의 말 실수에 관해서는 하루 종일 속보로 내보낸 것은 상당히 편파적이었다는 인상을 주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CNN이 트럼프가 생중계 연설할 때에 그렇게 트럼프가 관중을 비추라 해도 계속해서 무수히 많은 관중을 비추지 않고 의도적으로 트럼프만 잡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보여주지 않는 반면, 힐러리의 연설현장은 트럼프에 비해 관중이 많이 있지 않았지만 관중과 오버랩으로 촬영을 해서 꽉찬 모습으로 보여주었다. 요즈음은 여러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실시간 페이스북에 트럼프 연설 현장에 모인 엄청난 인파의 모습이 올라오고, 빈 곳이 많이 보이는 힐러리의 연설 모습이 또한 실시간으로 소셜 미디어에 올라오면서 실제로 힐러리의 열풍이 트럼프에 미치지 못함을 알게 된 것이다.

여섯 째, 주류 기득권층과 정치인들에 대한 반감이 이번 대선을 통해서 다시한번 볼 수 있었다. 이미 이런 기류는 미국 월가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에 대한 시위에서 벌써 감지할 수 있었다. 월가의 큰 손들이 적극적으로 힐러리를 지지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힐러리가 국무장관에서 퇴임한 이후 단지 16개월간 그가 받은 강연 수임료가 3,000만달러에 달했다고 하니, 1년 4개월간 3백억 원이 넘는 돈을 거두어 들인 그녀의 강연이 순수한 강연으로 보는 일반 대중은 없었을 것이다. 그의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그녀가 장관일 때 강연수임료로 4,800만 달러를 받았다고 하니, 이것을 어떻게 순수 강연료로 볼 수가 있겠는가? 그가 강연료를 받은 기업들이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신 자유주의를 이끌고 가는 대표적인 기업들이며, 1%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었다. 미국의 러스트 벨트는 실직자들로 넘쳐나고 있는데, 정치 명문가로 불리는 그녀는 계속해서 그의 남편과 함께 정치적 권력을 이용하여 부를 확대하고 있었으니, 일반 서민들이 그녀가 민중을 위할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 할 수 있었겠는가? 클린턴 재단은 사우디아라비아로 부터 2,500백만 달러 가량의 후원금을 받았고 그리고 이에 관련된 이메일을 개인 이메일로 폐기한 의혹을 받은 것이다. 돈이면 국가의 이익도 관심하지 않는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사실들이다. 이런 사실을 보면 왜 아랍권이 열렬히 힐러리를 지지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금번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라고 보지 못했던 요인 중에 미디어의 요인이 주요했다. 100대 언론 모두 힐러리를 점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 언론에 영향을 받은 해외 언론, 특히 한국언론들이 오판했음은 당연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공화당 예비 경선에서 트럼프가 16명의 후보와 경쟁에서 승리한 사실 하나만으로 그 것이 하나의 우연이나 해프닝이 아니었음을 인지했어야 했다. 미국의 언론이나 정치학자들 역시 대다수 힐러리를 점쳤으니 할 말은 없다. 그러나 주요 정치학자 중에 유일하게나마 노포스(Hermut Norpoth) 교수만이 트럼프의 당선을 확신했던 것 같다. 그는 뉴욕 스토니 브룩 대학에서 40년을 가르친 정치학자이다. 그가 개발한 프라이머리 모델에 의하면 트럼프의 당선 확률을 87~99%로 보았다. 그의 모델로 지난 6차례 대선 결과를 모두 맞췄다. 그가 이번 미국 대선 결과에서 내린 여러 요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변화를 주장하는 후보는 결함이 있어도 유권자들이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후보자의 결함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변화의 슬로건을 걸었고, 힐러리는 주류정치인 중에서도 로얄 정치인으로 경험과 경륜 후보임을 강조하였다.

미국이 보이지 않는 불만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 것 같다. 월가에서 시작된 신자본주의와 세계화에 대한 반대 시위가 미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일반 서민들의 피부로 느끼는 문제점 보다 여전히 성과 인종, 그리고 평등에 집중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미국의 일반 서민들은 오히려 역차별에 대한 불편함을 느낀 지 오래된 것 같다. 그의 책 "절름거리는 미국"이 베스트 셀러로 입에 오르고, 그의 책에서 그는 미국의 기성 정치권의 문제점과 그동안 산적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정치인이라면 말하기 어려운 것까지 거침없이 말함으로 일반인들이 대리 만족을 느꼈던 것 같다. 그리고 변화에 대한 열망, 우리를 구원할 영웅을 기대한 것이 아닌가 싶다.

좋든 싫든 이젠 결과가 났다. 아직 취임식도 안했으니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미국은 보호무역주의 형태로 가게 될 것이고, 나라는 더 우익화, 보수화, 자국우선 정책을 펼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전의 좌편향적인 정책들이 수정, 폐지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보수기독교의 목소리가 강경해질 수 있고, 어쩌면 트럼프가 말한대로 강한 미국으로의 회귀가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여전히 그에 대한 찬반 양론이 심하지만, 그가 말한대로 미국의 빛이 천문학적인 것이 사실이고, 방송에서 또한 공공장소에서 메리크리스마스라는 말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현실이 되어 버렸다. 동성애자에게 기독교적인 신앙의 양심으로 결혼식 꽃을 팔지 않았다고 13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내는가 하면 이슬람 직원이 술 배달을 신앙적 양심으로 안하겠다고 해직시킨 회사는 24만달러의 벌금을 내고 폐업을 해야 했다. 동성애자에게 결혼식 꽃을 팔지 않았다고 1,001달러의 벌금을 내고, 반면 케이크에서 성경 구절을 써달라는 것은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을 하니 보수기독교에서, 그리고 기독교 전통에서 자란 미국인들의 분노가 표출되었다고 본다.

새로운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든 미국인이 한마음으로 더욱 성숙하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미국으로 다시 변화되길 소망한다.

2016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0081, FAX:(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온 목사 T(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총신 대학교 신학 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 이동규 박사 학장 :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전: Sevis I-20 발행/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 #200,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북새통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추천

존 스토트의 설교
존스토트 | IVP | 236쪽

설교의 중요성은 교회사 전체에 걸쳐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설교의 시대는 끝났고, 설교는 이제 쓸모없는 소통 수단이며 사라져 버릴 기술이라고 한다. 이런 말은 설교자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설교자의 입을 다물게 한다. 이 책은 설교에 대한 신념에 도전하는 시대의 흐름에 저항하며, 어떻게 하면 설교자들이 성경적 설교를 할 수 있는지를 제시한다.

로이드 존스의 신학연구
양우광 | CLC | 535쪽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선언하고 있다. 이 책은 마틴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강해 1권~14권을 중심으로 그의 신학을 주제별로 연구한 내용이다. 저자는 하나님부터 시작하여 복음, 교회, 국가, 그리스도인의 삶, 종말에 이르기까지 로이드존스의 설교를 분석하여, 정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로이드존스의 다른 설교집을 참고하므로, 충분한 신학적 균형을 유지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다.

청년 옥한음-은혜는 흐른다
옥성호 | 은보 | 248쪽

어떻게 옥한흠 목사는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옥한흠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는 남들이 조금이라도 더 붙잡고 싶어하는 담임목사의 자리를 훌훌 벗어던질 수 있었을까? 왜 그는 평생 성도들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 발버둥쳤을까? 과거를 모르면 현재를 이해할 수 없다. 옥한흠을 우리가 아는 그 옥한흠으로 만든 그의 과거가 아들을 통해 밝혀진다.

이단논쟁
목창균 | 두란노 | 536쪽

왜 이단이라 하는가? 어떻게 해서 이단이 되었는가? 이단은 특정한 때 일어나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보편적 현상이다. 이미 소멸된 줄 알았던 이단 종파가 모양을 달리해 되살아나기도 한다. 그런 면에서, 이단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이단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훌륭한 길잡이가 될 수 있다. 고대 교회부터 한국 교회까지 이단을 살펴 바른 신앙을 모색한다.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타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REVIEW

'온 힘과 뜻'을 다해 살았던 스펄전의 감동어린 삶

설교의 황태자 찰스 해돈 스펄전의 감동어린 일대기를 다룬 이야기

좋은 전기의 유익에 대해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

이 책은 교파를 초월한 기독교 유산인 "설교의 황태자" 찰스 해돈 스펄전의 일대기로 읽는 이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줄 것이다.

스펄전에 대해 많은 책이 쓰였지만 이 책만큼 출생부터 성장, 회심, 소명, 목회 및 자선 사역, 다양한 책들의 서평, 내리막길 논쟁, 질병, 고난, 죽음 등 그의 삶과 사역을 포괄적으로 다룬 책은 없다. 우리는 자신의 시대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온 힘과 뜻을 다해 살았던 자의 삶을 이 책에서 읽을 수 있다.

그는 등장부터 경이롭다.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던 스펄전은 그의 재능을 발견한 부장 때문에 설교를 한 번 해 보게 된다. 이를 계기로 대학 교육과 신학 훈련 없이 십 대 후반에 특수 침례교회의 목회자로 청빙을 받는다. 이후 교회는 급성장하고 그는 곧 런던 최고 설교자로 인정받게 된다.

그의 사역은 목회 사역뿐 아니라 고아원을 짓고 불우한 이들을 돕고 서적 행상인들과 복음 전도자들의 양성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목회자 대학 설립을 통해 이미 목회 경험이 있던 자들을 가르친 후 선교사/전도자들을 파견한 것뿐 아니라 현대화의 물결이 교회와 신학에 침투한 것에 대항해 진리로써 싸운 것을 포함한다. 사후에도 오늘날까지 끊임없는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의 삶에 대해 읽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목회자로서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 숙고하게 할 것이다.

스펄전 평전
톰 네틀즈
부흥과개혁사 | 1056쪽

앨버트 몰러(R. Albert Mohler Jr.) 남침례신학교(켄터키 루이빌) 총장은 추천사를 통해 "스펄전은 복음주의라는 산맥의 거대한 산 같은 인물이다. 네틀즈는 스펄전을 인간으로, 신학자로, 교회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목회자로 드러내며 우리를 스펄전의 신념과 목회 신학의 심장으로 인도한다. 본서를 읽는 자는 용기와 교훈과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했다.

데이비드 베빙턴(스털링대학교 역사학 교수)은 "찰스 해돈 스펄전은 19세기 영국에서뿐 아니라 아마 전 세계에서도 최고의 설교자였을 것이다. 침례파 목사였던 스펄전의 열정적이고 호소력 있는 설교는 수많은 청중과 독자의 마음에 복음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전달했다. 이 책의 저자 톰 네틀즈 교수는 스펄전의 삶을 열렬한 존경심으로 접근하면서도 구체적인 증거들에 대한 판단은 매우 조심스러워한다. 이 책이 특별한 점은 네틀즈 교수가 스펄전이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 교회의 목사로서 편집 출간한 월간지 〈칼과 삽〉을 신선한 자료의 원천으로 풍성하게 사용함으로써 스펄전의 삶과 목회와 신학을 새롭게 조명한다는 것이다"라고 추천했다. 또한 UCCF 신학 분과장이며 〈선하신 하나님〉의 저자인 마이클 리브스는 "이제 톰 네틀즈의 역작은 스펄전의 존재와 그의 사역이 지닌 진가를 주목하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며 추천했다.

이영인 기자

활성산소 제거?
해답은 수소수!
좋은 물을 마시면 우리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노화를 촉진하고 세포와 DNA를 공격하여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병들의 원인이 바로 활성산소(독성산소, Free Radicals)이며, 수소는 그런 활성산소와 결합하여, 우리 몸에서 부작용이 전혀 없는 물로 변환되어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소의 역할
– 대표적 활성산소인 하이드록시 래디컬과 결합해서 몸에서 배출
– 체내의 염증을 제거하여 통증을 완화
– 미세분자상태로 체내의 모든 부분, 심지어 뇌까지 도달되어 활성산소를 제거

본 수소수기의 특징
1) 2중 역삼투압 방식에 의한 순수한 원수를 바탕으로 고농도(800~1,000ppb)의 수소수를 생성하며, 물의 성질은 우리 몸에 가장 적합한 약알카리 상태가 됩니다.
2) 대용량 필터를 사용하여, 깨끗한 물을 생산한 별도의 전해조에서 생산된 수소가스를 우리가 음용하는 물에 가압하는 첨단방식으로 즉시 물을 드실 수 있고 오랜기간을 사용해도 수소가스의 농도가 유지됩니다.

수소수의 활성 산소 제거 과정
수소 활성 산소 ▶ 수소 활성 산소 ▶ H_2O
체내에 물과 함께 흡수된 수소가 분리되어
몸에 나쁜 활성산소와 결합이 되고
무해한 물로 바뀌어 소변이나 땀등으로 배출됩니다.

프랑스 "루르드 샘물"
독 일 "노르데나우 샘물"
멕시코 "트라코테 샘물"
세계 3대 샘물의 비밀
기적의 수소수를 가정에서 드세요!

일본의 시타마대학교의 하타나 가주끼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수소농도 1,000ppb의 경우에 베타카로틴 함량 기준으로, 위와 같은 양의 항산화 물질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항산화 물질은 들어갈 수 없는 뇌 속이나 깊은 장기의 미세조직까지도 수소는 도달될 수 있으며 도달된 수소는 활성산소들을 물로 변환시키므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수소수 무료 시음!
깨끗하고 건강한 물 드시러 오세요.

한국의 키친아트 PLUS 에서 생산된 우수한 제품입니다.

Pure & Good
Hydrogen Generator with Water Purifier
구입 문의 Tel. 213)434-1170 PRO-Z USA, Inc.
621 S.Virgil Ave. Suite 100 Los Angeles, CA 90005

[북스리뷰]

일신의 '안일과 행복'을 갈망하고 있는 이 시대에게

'따르는' 삶과 '추구하는' 삶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갈망
손종태
국민북스 | 232쪽

◈갈망

일반적인 삶과 신앙적인 삶은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분명 차별된 삶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 이유는 선택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 선택과 믿음의 선택은 분명 삶의 차별들을 낳게 된다.

여기에 이 책의 저자는 한 술 더 떠 '갈망'이 있느냐고 독자에게 질문을 던진다.

'믿음이 있느냐?'와 '갈망이 있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신앙적 질문이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따르겠다는 의미이다. 반면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받아들임의 차원을 넘어, 자신을 던져 그 무엇을 추구하겠다는 의미이다. '따르는' 삶과 '추구하는' 삶은 분명 방향은 같을지라도 삶은 다를 것이다.

◈어느 것이 더 큰가?

그 무엇을 위해 자신을 던진다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다. '분명한 목표, 소명, 사명, 확신, 열정과 헌신' 등을 담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포기, 단념, 버림, 희생'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

우스갯소리지만, 목회자들 사이에서 싫어하는 찬송이 있다고 한다. 찬송가 323장,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싫어하는 이유는 '어디든지 가오리다'가 아니라 '고르고 골라 가오리다'가 현실이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믿음보다 두려움이 더 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보다는 자신의 욕망(야망)과 육신적 필요가 더 우선인 까닭이다.

자기 자신의 것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을 행동과 삶으로 옮기는 것은,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우리가 많은 사역과 일을 할지라도, 자기를 위한 사역인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사역인지는 마지막에 판가름 날 것이다.

◈부흥과 연합

저자의 삶을 읽어가면서 엄청난 용기와 결단의 연속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진 것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다. 더욱이 그것이 아직 유용하고 가치가 있거나 앞으로 비전이 있고 유망한 경우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저자는 부흥을 향한 갈망,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국교회가 연합된 부흥의 갈망을 위해 자신의 젊음을 희생시킨다.

즉 자신의 개인적 행복을 버리고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가슴 속에 들어 있는 부흥과 연합의 갈망이 다소 이상적인 꿈이었지만, 개인적 욕망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꿈은 꾸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저자는 이 부분에서 남다르다.

◈래디컬

이 책에 소개된 저자의 삶을 보면 정말 '래디컬'하다. 급진적이고 파괴적이다. 그런데 이것이 역설적이게도 본질과 뿌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대부분이 그렇듯 자신의 목적 달성이나 이름을 내기 위해 쉼 없이 달려가는 시대에 '본질'과 '뿌리'를 찾는다는 것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선전 문구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과 부흥의 본질과 뿌리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역과 삶은 자신을 절제해야 하고, 스스로를 공격하고 죽여야 하며, 숱한 오해와 방해와 저항뿐 아니라 달콤한 유혹들을 감내하면서 그 자리와 방향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저자는 불의한 세상과 교계가 아니라, 연합과 부흥의 본질과 뿌리를 찾고 지키기 위해 자신을 급진적으로 파괴시켜 버린다.

◈아버지의 마음

발달심리학에서는 생애 주기별로 발달과제들이 있음을 소개한다.

이렇듯 영적 성장과 사역의 단계들도 각 단계마다 성장과 발달을 거듭하면서 그 시기별로 주요 과제들이 나타나는데, 저자는 지금 그동안 품고, 추구하고, 갈망하며 달려왔던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새로운 갈망을 느끼고 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

현재 저자는 자신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갈망하고 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세하게 정의하지도,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것은 저자가 품고, 느끼고, 주님 앞에서 키워가야 할 또 다른 주님이 새롭게 주신 갈망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상처받은 아버지의 마음

이 책에 담긴 내용 안에서 저자는 젊은 시절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적 부흥이 아니라, 범민족적이고 범교회적인 연합과 부흥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 달려왔다.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에너지와 모든 인간적 행복까지 희생시키며 달려왔다. 책에는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상처와 고통을 겪어야 했을지 상상할 순 없지만 짐작은 된다. 그리고 어쩌면 그 상처와 고통(온갖 비방, 모함, 오해 등)은 아직 진행 중일지도 모르겠다.

저자는 이러한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승화시키고 극복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조심스레 추측해 본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고는 그 아픔을 견디고 극복해 낼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자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는 건강하지 않다고 충고하고 싶다. 그래서 울고 싶은 욕망, 변명하고 싶은 욕망, 피하고 싶은 욕망과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자 하는 갈망 사이에서, 때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왔으면 좋겠다.

◈욕망과 갈망 사이에서

이 책의 전반부에서는 자신의 사역들을 이야기하는데 비중을 많이 두었다면, 후반부에서는 자신의 사역들을 성찰하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된다. 그러면서 자기 삶의 이야기들을 소개한 목적을 마지막 부분에서 밝히는 듯 하다. 즉 신앙의 삶은 '욕망'과 '갈망'의 지속된 싸움이라는 것이다. 이 싸움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선택은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어떠했고, 자신의 상태와 반응은 어떠했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주관적 체험이기에 객관적인 방법이나 기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지만, 저자가 삶으로 실천하고 몸으로 부딪쳐 왔던 생생한 이야기는 일신의 안일과 행복을 갈망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과 삶이 어떠한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간증과 거울이 될 것이다.

나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강도헌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운영자

[북스리뷰]

자유의지란 환상일 뿐일까?

자유의지란 도덕적·법률적 문제와 관련된다

자유의지는 없다
샘 해리스
국민북스 | 232쪽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유의지란 도덕적·법률적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의 사정(트라우마나 뇌종양 문제 등)을 알게 되면 판단을 주저하게 된다. 의지와 사고는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배경으로부터 발생한다. "자유의지란 단연코 환상이다." 우리는 과거에 했던 것과 다르게 행동할 수도 없으며, 자신의 사고와 의식의 원천이 자기 자신이라는 주장도 틀렸다. 뇌는 수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우리는 그 일부만을 인식할 수 있다. 리벳의 실험은 인간이 무엇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기 전, 이미 그에 앞서(약 700밀리세컨드) 그러한 선택을 할 것이라 반응하는 뇌의 부위 두 곳을 발견했다(80%의 확률). 이 외의 실험들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기 전 이미 무엇을 선택할지 촬영장치(fMRI)를 통해 관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뇌는 물질이다. 물질은 자연법칙을 따른다. 비록 자발적 행동과 비자발적 행동 간에 차이가 있을지라도, '의도'그 자체, 그리고 그 의도에 따른 선택들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 주제에 접근하는 철학적 방식은 다음 세 가지이다. 결정론, 자유론, 양립가능론. 자유론은 비물리적 영혼을 주장하고, 결정론은 오로지 배경 원인에만 의존한다고 주장하며, 양립가능론은 이 양극단을 피하려 한다. 양립가능론은 결정론이 소시오패스도 희생자처럼 보이게 만들어 도덕적·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정작 양립가능론은 결정 이면에 놓인 욕망을 해결하지 못한다. 다니엘 데닛과 같은 양립가능론자들은 심리학적 사실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자신이 자기 사고의 행동의 주인이라고 느끼는 주체성에 대한 감정과 책임감은 관계없다. 전자의 감정은 허상일 뿐이다.

물리적 관점에서 모든 것은 비인격적 사건으로 환원 가능하기에, 일부 과학자와 철학자는 우연 혹은 양자불확정성이 자유의지에 대한 숨통을 틔어주길 기대한다. 그 대표적인 생물학자가 마르틴 하이젠베르크(불확정성의 원리로 유명한 베르너 카를 하이젠베르크가 아니다-서평가 주)이다. 마르틴 하이젠베르크는 뇌의 특정 작용은 무작위적으로, 자기발생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자유의지'와 상관없으며, 오히려 '나 자신'을 놀라게 할 사건이 될 것이다. 오히려 그런 불확정성에 우리의 행동이 종속된다면, 책임감은 더욱 사라진다.

우리의 선택은 사건들에 의존한다. 그러나 결정론은 운명론과 다르다. 운명론의 태도,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비관적 태도도 일종의 선택이다. 더욱이 '충동'은 큰 힘을 갖고 있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더욱 적극적 선택이 될 것이다. 다만 우리는 존재하기에 책임을 진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한계는 생물학적이다. 그러므로 나는 다르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착각이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할 자유가 있다. 그렇지만 당신의 욕망은 어디서 유래한 것일까?" 이러한 진실에 마주한다 해서 비생산적인 태도를 지녀선 안 된다. 도리어 과거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나의 문제점을 보다 현실적으로(생물학적으로, 밥 한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샘 해리스의 논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만한 사람은 아마도 신경과학자나 심리학자 정도일 것이다. 물론 샘 해리스의 입장을 기독교가 비판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신학은 인간의 실존에 대한 해석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진규선 목사
서평가 · 번역가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크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 칼라 레귤러 $40 up $20 up
매직 스트레이트 레귤러 $120 up
*단, 칼라만 하시면 $40up
프로페셔날- 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S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A newspaper of reconciliation led by the Holy Spirit

CHRISTIANITY DAILY

SUBSCRIPTIONS:
Don't miss out on the news!
To subscribe,
please e-mail us at
christianitydaily@gmail.com.

Tel. 213-739-0403 www.christianitydaily.com THURSDAY, December 22, 2016 Vol. 82

More than 800 youth and college students gathered at the Town and Country Resort and Convention Center in San Diego, CA on Tuesday for the first night of SOON Movement's annual Higher Calling Conference.

Hundreds Gather for Higher Calling Conference, Hoping for 'Resurgence of the Holy Spirit'

BY RACHAEL LEE

Over 800 youth and college students gathered in San Diego on Tuesday evening for the annual 'Higher Calling' Conference, a missions conference hosted by the college ministry SOON Movement (also known as Korea Campus Crusade for Christ).

The annual Higher Calling Conference, which will be taking place from December 20 to 23, aims to "mobilize and equip the emerging generation to actively take part in fulfilling the Great Commission," according to the organizers. This year's conference in particular will be focusing on the theme, 'Resurgence,' with the theme verse Ezekiel 37:5-6.

"What we need is not an increase in numbers, works, or acts of human origin -- we need a resurgence of the Holy Spirit to revive the dead and dying among us," the organizers stated.

Jim Munroe, performer of 'The Maze,' speaker, and author who uses magic to share the gospel, was featured as the first main plenary speaker. He acknowledged that seemingly random circumstances in life, particularly the bad or "dead end" ones, may stir doubts and prevent people from believing in God, as he shared he initially did as well. But Munroe, using his magic, "put the idea of random to the test" with the audience throughout the plenary session.

"Could there be something bigger going on going on behind the scenes, beyond the world we experience with our five senses?" he ultimately asked. "That all of the seemingly random circumstances are drawing you to something bigger?"

More than 80 students approached the stage during the session to pray to commit to live for Christ.

The session also featured a theatrical performance by a student team, and a time of prayer led by Young Lee, SOON Movement's Los Angeles regional director.

Munroe is among six main plenary session speakers featured throughout the conference, including Jessica Harris, author of 'Beggar's Daughter'; Sean McDowell, author and assistant professor in Christian apologetics at Biola University; Shane Sebastian, executive director of Global Missions with Cru; and David Oh, senior pastor at highland Cornerstone Church.

This year's Higher Calling Conference also features 12 elective seminars on topics such as vocational calling; faith and work; depression; sexuality and purity; and apologetics, among others. While the elective seminars are geared for college students, youth students will simultaneously attend separate seminars and a youth rally.

A 24-hour prayer room and private counseling sessions called 'Soul Care' are also being made available throughout the duration of the conference.

SOON Movement has hosted missions conferences on an annual basis since 1996. While the missions conferences were initially for members of the college ministry, SOON Movement has opened up the conferences to youth and college students of local churches outside of the ministry since 2010.

New Hope Church Gives $18,000 for Victims of Hurricane Matthew in Haiti

New Hope Church, a Korean immigrant church located in Maryland, gave $18,000 to Korean American Food for the Hungry International (KAFHI), a donation which will be used to provide aid to victims of Hurricane Matthew in Haiti. The nation suffered a significant earthquake in 2010 during which some 220,000 died and 300,000 were injured, but it experienced yet another trial as Hurricane Matthew swept through the nation even before it completely healed from the earthquake.

Upon hearing the news, New Hope Church decided to raise funds to help those in Haiti, despite the fact that the church had planned to remodel its sanctuary in the near future. Church members held a yard sale to fundraise, and the funds will be used to restore villages in the southwestern area of the country, and to provide food, water, and medical supplies.

"Even now, there are countless refugees and orphans who are yearning to receive warm love," said Rev. Seung Ho Chung of KAFHI. "In East Africa, Syria, Indonesia, and other areas, women and children are groaning and awaiting a helping hand in the midst of war and disaster."

New Hope Church in Maryland gave an $18,000 donation to Korean American Food for the Hungry International.

Stepping Stone Mission held a mission training session specifically on preparing youth students for mission trips.

'God Poured Out His Heart of Love for Those Who Are Homeless'

BY SUYOUNG YOON

Stepping Stone Mission, a nonprofit which reaches out to those who are homeless, held a seminar on December 18 at Korean Community Presbyterian Church of Atlanta on how to prepare youth for mission trips.

Stepping Stone Mission has led efforts to help those who are homeless get on a path to recovery and has helped them decide to live a new life.

This recent seminar was attended by staff, youth, and organizers from Sae Han Presbyterian Church, New Days Church, Johns Creek Korean Church, and Korean Community Presbyterian Church.

Hyung Il Park from Central Presbyterian Church in Washington was featured as the main speaker during the seminar. Park is known to have volunteered at Stepping Stone's various seminars and events.

"For youth and young adults, body worship and praise is like self-realization. And they are receiving greater motivation as they go out to the training seminars and evangelism events and are moved by what they see," Park said. "At first, many were afraid of those who are homeless. But when the students in the mission team overcame their fears and went out, God poured out his heart of love for those souls, and they were able to embrace the people they met and pray with them."

Meanwhile, a mission team of 13 including Park began their mission trip reaching out to homeless individuals starting December 19 and have been participating in spiritual training sessions for those who are homeless.

Most Churches to Hold Services on Christmas and New Year's Day

A new survey by LifeWay Research showed that nine in ten Protestant pastors said their churches will hold services on Christmas Day and New Year's day, even when both of these days fall on a Sunday.

A random telephonic survey was conducted on 1,000 senior Protestant pastors between August 22 and September 16, and the responses were weighted by region to more accurately represent the population.

As many as 89 percent of the churches will open on Christmas Day and 85 percent on New Year's Day.

Over 70 percent of the pastors said they will hold Christmas Eve services, and 25 percent are also open on New Year's Eve.

Some 63 percent of the churches will hold services both on Christmas Eve and on Christmas Day.

Only 20 percent of the churches are open on New Year's Eve and New Year's Day as well.

There are some churches which are only open on Christmas Eve, and will conduct more services on the eve to make up for the holiday on Christmas Day.

"We plan to have five Christmas Eve worship services on December 24," said Crystal Kirkman, the communications director at First Christian Church in Decatur, Ill.

Slight differences in church attendance were found among various denominations.

Lutherans (94 percent) were most likely to celebrate Christmas Day on Sunday, followed by Church of Christ (93 percent), and Holiness churches (92 percent). About 91 percent of Baptist and Presbyterian/Reformed churches are also open on Sunday. Only 71 percent of the Pentecostals will celebrate this Christmas Sunday with a service.

Small churches and large churches were somewhat less likely to conduct Christmas Day services, as compared to congregation sizes that fall in the middle. Only 84 percent of the churches with fewer than 50 members and 85 percent of those with over 250 members will open for Christmas Day service. As many as 92 percent of the mid-size churches with some 100 to 249 attendees will conduct Christmas Day services on Sunday.

Christianity Daily will not be issued next week.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2:4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Efforts to Repeal North Carolina's Controversial 'Bathroom Law' Stalled

North Carolina lawmakers have failed to vote to repeal the state's bathroom law on Wednesday evening after the governor-elect announced on Monday that a special session would be called to repeal it.

The House voted on Wednesday evening 58 to 45 to adjourn the session without having reached an agreement to repeal the law, according to the Los Angeles Times.

The law mandated people to use restrooms in accordance with their birth genders, which the outgoing governor Pat McCrory said was implemented for protection of women and children.

Governor-elect Roy Cooper won the state elections by a narrow margin. He had expressed his vocal opposition to the law throughout the campaign, blaming it for loss of jobs from the state and boycotts from several music bands and businesses.

The bathroom law was passed after a city ordinance in Charlotte compelled businesses to allow people use bathrooms based on their gender identities. The bill HB2 was signed into law in March, and canceled the Charlotte ordinance. The Charlotte City Council met together on December 19th and repealed the city ordinance so that HB2 could be nullified as well.

"Senate Leader Phil Berger and House Speaker Tim Moore assured me that as a result of Charlotte's vote, a special session will be called for Tuesday to repeal HB2 in full. I hope they will keep their word to me and with the help of Democrats in the legislature, HB2 will be repealed in full," Cooper said in a statement.

The HB2 bill had been expected to be repealed by December 31st. Council members say that if that does not happen, the ordinance will not be taken back.

LGBT activists have welcomed the new move by the lawmakers, but were wary of the decision by the council members to repeal the city ordinance.

"LGBT rights aren't a bargaining chip. Charlotte shouldn't have had to repeal its ordinance in exchange for HB2 to be repealed," said Simone Bell, the Southern Regional Director for Lambda Legal. "LGBT people in North Carolina still need protection from discrimination."

McCrory had maintained his stance for months amid pressure from federal departments, businesses, and other influential opponents that the HB2 provision was a "common sense privacy policy" to protect women in public restrooms.

Ohio Governor Signs 20-Week Abortion Ban, Vetoes 'Heartbeat Bill'

Ohio became the latest state in the US this year to ban abortions after 20 weeks, but vetoed the 'heartbeat bill' which prohibited abortion at around six weeks when fetal heartbeat becomes detectable.

Fifteen other states have 20-week ban on abortion, but the 'heartbeat bill' would have been the strictest abortion regulation in the country as most women are not aware of pregnancies before week six.

Governor John Kasich is known to have taken a pro-life stance in the abortion debate, but vetoed the 'heartbeat bill' because he said that odds of legal challenges were stacked high against the bill.

"The State of Ohio will be the losing party in that lawsuit and, as the losing party, the State of Ohio will be forced to pay hundreds of thousands of taxpayer dollars to cover the legal fees for the pro-choice activists' lawyers. Furthermore, such a defeat invites additional challenges to Ohio's strong legal protections for unborn life," he said in a statement.

Similar measures have faced legal challenges in other states, the statement goes on to say. Kasich noted bans in two other states had been declared unconstitutional.

The 'heartbeat bill' was considered by the Ohio Senate many times in previous years, but was never passed because of the unlikelihood of its withstanding legal challenges.

Ohio Governor John Kasich vetoed the 'heartbeat bill' but signed the 20-week abortion bill into law earlier this month. (Photo: Gage Skidmore / CC)

At least forty three states have some form of abortion restrictions tied to phases of fetal development and viability of the fetus outside the womb. Some states have restrictions linked to time after conception. In other states, the laws that make abortion illegal after viability of the fetus are not dependent on time period of pregnancy.

Abortion rights groups were against both the 20-week ban and the heartbeat bill. Some expressed plans to challenge the new 20-week ban.

"There's no way we're going to take this lying down," Gabriel Mann, spokesman for Naral Pro-Choice Ohio, told the New York Times. "It's too horrific of a restriction for women who are facing medical complications and situations where they need an abortion around that 20-week period."

Some pro-life organizations welcomed governor's decision to pass the 20-weeks ban while vetoing the 'heartbeat bill.'

"While it must have been difficult, the current makeup of a radically pro-abortion Supreme Court required the governor to exercise great restraint," said Ohio Right to Life President Mike Gonidakis. "By endorsing the 20-week ban in lieu of the heartbeat approach, Gov. Kasich provided strong pro-life leadership to finally engage a winnable battle with the federal judiciary while saving countless babies at the same time."

District Judge Allows Restoration of Poster on Texas School Nurse Office Door with Bible Verse

A Texas court ordered the restoration of a Bible verse on a Charlie Brown poster that was removed by the administration of a middle school.

The "Charlie Brown Christmas" poster was displayed on the nurse's office door by Dedra Shannon, a nurse's aide, at Patterson Middle School in Killeen on December 5. The poster shows a smiling character of "Linus" from comic strip "Peanuts," who is waving his hand while reciting a Bible verse.

The message on the display is from the 1965 holiday special, where the main character Charlie Brown is being mocked by his classmates over his modest Christmas tree, but then he asks other kids, "Isn't there anyone who knows what Christmas is all about?"

His best friend Linus is the only one who answers, "Sure, Charlie Brown ... I can tell you what Christmas is all about."

He then narrates a Bible verse from Luke. "For unto you is born this day in the city of David a Savior which is Christ the Lord," Linus says. "That's what Christmas is all about, Charlie Brown."

A few days after the message was displayed on the nurse's office door, the school's principal told Shannon to take down the poster lest non-Christians feel uncomfortable and the display be interpreted as government endorsement of Christianity.

The school board members voted to remove the poster.

However, Shannon sought legal counsel from a conservative non-profit law firm Texas Values. The firm and the Texas Attorney General sent their respective letters to the school to discuss the matter.

The Attorney General's office took the case to the district court to appeal for an injunction so that the message could be put back up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of freedom of speech and religion.

District Judge Jack Jones gave his verdict in favor of Shannon, but said that the poster can only be restored with the label on top of it stating "Ms. Shannon's holiday message."

The school district said they have no problem with the judge's decision.

"We believe that directing the individual to include the additional text better complies with state and federal law," the school district said in a press release. "We support this decision."

Obama Signs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

President Barack Obama signed a bill that would promote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nd help stop the persecution of Christians and religious minorities around the world.

The House and Senate had passed the Frank R. Wolf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 (IRFA) without any opposition.

The new law is an improvement of the 1998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 which intensifies advocacy of religious freedom in US foreign policy. The legislation was endorsed from both the Republican and Democratic sides of the aisle.

Former congressman Frank R. Wolf from Virginia, after whom the bill is named, is known to be a committed Presbyterian, who had spent years defending human rights and religious freedom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He retired last year, and was the sponsor the original 1998 IRFA as well.

"Eighteen years ago, he [Wolf] had the foresight to make advancing the right to religious freedom a high U.S. foreign policy priority. It is largely because of his efforts that religious freedom is taken seriously as a foreign policy issue. I had the distinct honor and pleasure of working with him for over thirty years. This bill is a fitting tribute to his work and service to our great nation," said Rep. Chris Smith (R-NJ).

Smith, Chair of the Global Human Rights Subcommittee, co-sponsored the bill with Rep. Anna Eshoo (D-CA) said that the legislation will give the State Department new resources to tackle extremism and global persecution of religious minorities.

"The freedom to practice a religion without persecution is a precious right for everyone, of whatever race, sex, or location on earth," said Smith. "This human right is enshrined in our own founding documents,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has been a bedrock principle of open and democratic societies for centuries."

President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s Ethics and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Russell Moore, said that the legislation would help protect freedom for people who are oppressed for their faith.

"Millions, including many of our Christian brothers and sisters, have experienced the most brutal forms of persecution, and entire cultures are now on the brink of extinction," Moore told the Baptist Press. "This is an urgent human rights crisis, and global religious liberty is too important to become a partisan wedge issue."

Sunday Services: 9 AM & 11:15 AM
Children's Ministry: 9 AM & 11:15 AM
Youth Group Service: Sundays at 11:15 AM
Pastor Keith Park
Church of Southland
1380 S. Sanderson Ave, Anaheim, CA 92806
T. (714) 209-7349 / churchofsouthland.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 10:45 AM
Children's Ministry Services: 9 AM & 10:45 AM
Youth Services: Sundays at 9 AM, Wednesdays at 6:30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0:45 AM
Pastor Tim Park
Evangelical Free Church Diamond Bar
3255 S. Diamond Bar Blvd, Diamond Bar, CA 91765
T. (909) 594-7604 / www.efreedb.org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 gs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la.org

Sunday Services: 9:45 AM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10: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0:30 AM, 12:15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2:15 PM
Pastor Kiwon Suh
New Life Vision Church
407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323) 373-0110 / www.nlv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 ynccla.org

JESUS HEALING MINISTRY

제 22차 / 목회자, 평신도를 위한

JHM 영성 컨퍼런스

간증사례

유ㅇㅇ사모/ LA
저는 두 번의 직장암 수술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암이 재발되어 두 번째 수술할 때는 직장의 암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채 봉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3개월에 한 번씩 MRI, CT Scan, 피검사 등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 캘빈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바로 그 날, 잠을 자는데 어떤 큰 손이 나의 직장과 대장을 밖으로 꺼내어 물로 깨끗히 씻어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후 7년이 지난 지금에는 전문의로부터 나는 더 이상 암환자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고, 더 이상 매년의 정기 검진이 필요 없다고 의사로부터 확진을 받았습니다. 이 치유 받음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분이 역사하시면 어떤 질병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 밖에 없었던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에 대한 보답으로 저는 평생 JHM 사역을 도와서 나와 같이 불질병으로 고통 받는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미선 자매/ 사랑의 교회. 서울 서초구
오랜 믿음생활에도 저의 신앙은 겉돌았으며 게다가 결혼 9년차 임에도 아이가 없었고, 시험관 아기를 세 번째 시도해봤지만 실패했고, 남편과의 사이도 멀어져서 저는 이것이 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혼을 고려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때 여 캘빈 목사님에게 상담과 기도를 받은 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한 차원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방언통변을 통해 제 영의 간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기도생활에 열심을 내게 되었고, 그런 와중에 시험관 아기를 4번째로 다시 시도하고픈 마음이 들어 실행에 옮긴 결과 지금은 임신 19주째의 건강한 딸 아이가 제 속에서 자라고 있답니다. 캘빈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ㅇㅇ집사/ 대학교회. 서울
저는 원인 모를 어지럼병으로 몇 년 동안 누워서만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 때는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오랜 시간 해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내 안에 무당의 악한 영으로부터 짓눌려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축사를 통해 악한 영이 쫓겨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있는 신앙 생활 했음에도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저에게 목사님은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이제는 말씀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안개가 걷히는 것같이 선명해지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 캘빈 목사님의 성령 사역은 시대적으로 필요한 사역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김ㅇㅇ목사/ LA 사역자
저는 지난 5년여 동안 아주 심한 변비로 인해 배는 임신 10개월처럼 나와 있었고 늘 고통을 받아왔었는데 지난 11월 19일에 캘빈 여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완전 치유를 받게 되어 지금은 이전과 같은 변비로 인한 고통없이 지내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캘빈 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영성 컨퍼런스에서도 크신 역사와 치유 그리고 기적들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임동언 집사/ 서울. 4차~16차 집회 참석자
저는 본래 무신론자로서 살다가 예상치 못했던 사업적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해 몸까지 아파서 자살까지 결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의 소개로 목사님을 만나 상담하고 JHM 영성 집회를 꾸준히 참석한 결과 지금은 건강과 일 그리고 제정문제까지도 회복되었으며, 나의 일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속에 늘 감사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LA서 열리는 영성 집회에 꼭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여 캘빈 목사님이 잘 도와드릴 겁니다.

데니얼 아빠/ 집사. 서울
50대 중반의 사업가로서 저는 사업상 여러 번의 쓴 잔을 마셨습니다. 모태 신앙인이었지만 믿음 생활은 항상 겉돌았고 사업은 내 머리와 힘으로만 했기에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을 만나 성경을 배우게 되었고 또한 저를 위한 예언사역을 통해 신앙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서부터 제 삶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성공해서 주의 일을 하겠다고 기도해 오던 삶의 우선 순위가 어느덧 바뀌어 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에는 그토록 노력했으나 되지 않았던 일들이 술술 풀리면서 지금은 사업이 미국, 중국, 동남아로 진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계십니다. 이제 저의 목표는 JHM의 곡간을 채워서 작은 교회 목회자와 세계의 선교사들을 영적으로 돕고자하는 목사님의 비젼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쓰임 받는 것이며, 저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힘으로만 사업하며 고생하는 사업가들을 이 사역으로 이끌고 싶습니다. 저를 제정적으로 회복시키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드보라 김 사모/ LA 사역자
오랫동안 가까이서 지켜본 여 캘빈 목사님은 많은 은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항상 겸손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언제나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는 귀한 사역자입니다. 이전에 제가 많이 지쳐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그 때 5살 아이로 보이는 제 어린 시절의 모습과 그 옆에 예수님이 저를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보게 되었어요. 제 어린 시절은 온 가정이 불교에 심취해 있던 때였음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위로와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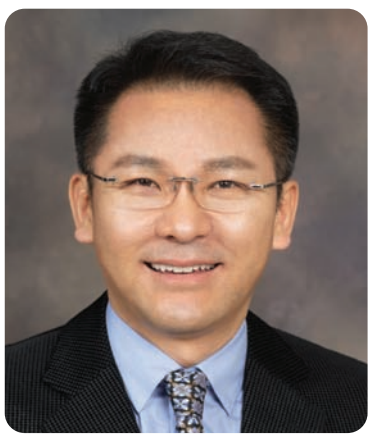
권세능 목사/ 주천성교회 담임. 경기도 평택
올해 8월 여 캘빈 목사님 초청 영성 부흥회는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가졌던 그 어느 집회보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집회였습니다. 특별히 방언을 오랫동안 사모했으나 받지 못했던 모든 성도들에게서 방언이 터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며, 또한 세밀하고 정확한 방언통변을 통해서 성도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집회는 영적 침체기에 빠져서 목회를 중단하려 했던 저를 변화시켜 새로운 사역자로 거듭나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영성 사역자가 여 캘빈 목사처럼 지적이면서도 성경 말씀에 깊이가 있고 은사를 성경적으로 균형있게 잘 활용하는 분을 거의 보지 못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영성 사역자로 귀하게 쓰시는 신실한 종입니다.

이상목 목사/ 이어리한인교회 담임목사
저희 교회에서의 두 번에 걸친 부흥집회를 통해 성도들의 오랜 영적인 문제가 해결 받고 신앙과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여 캘빈 목사님은 말씀과 영성을 균형있게 겸비한 사역자임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영적 세계에 관한 것들 즉 방언통변, 예언, 축사 사역은 아주 탁월합니다. 참석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므로 JHM 영성 컨퍼런스에 참석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영적,
정신적,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함'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 11:1-2]

주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균형잡힌 파워 크리스챤으로의 회복"



주강사 여 캘빈 목사

-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소속
- 내적치유 사역자 (신유, 예언, 축사, 방언, 방언통변)
- 영성집회 인도자 (미국, 한국, 중국, 유럽, 서남아 등)
- Kunsan National Univ.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BA
- Miju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M.Div
- Criswell Theological Seminary MA 2yrs. <Dallas, TX>
- Fuller Theological Seminary MA 2yrs.
- Grace Theological Seminary MA <Indiana, OH>
- Grace Theological Seminary Dr. of Missiology Candidate <Indiana, OH>

할렐루야!

제 22차 'JHM 영성 컨퍼런스'를 미국에서 열게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행해 온 지난 21차에 걸친 'JHM'을 통하여 많은 참석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통해 은혜의 회복과 은사를 경험한 후 변화되어 각자의 지역 교회에서 신실한 일군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지나 온 JH Ministry를 통해 말기 위암 환자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환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옛 자아, 죄 그리고 질병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실 제 22차 'JHM 영성 컨퍼런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박 4일 동안 본 집회에서는 성경적인 신유, 예언, 축사, 방언, 방언통변 등의 은사들을 정확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고통 중의 성도에게는 자유함을, 갈급한 영혼에게는 생수와 같은 성령의 기름부으심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2017년 새해에 JHM 영성 컨퍼런스를 통해 여러분의 영성과 믿음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십시오.

- 컨퍼런스 일시 : 2017년 1월 22일(주일, 4 pm) ~ 1월 25일(수, 4 pm) 까지 3일간
- 장소 : 빅베어 Pine Crest Christian Conference Center
- 주소 : 1140 Pine Crest Road. Twin Peaks, CA 92391
- 접수 마감일 : 2017년 1월 17일
- 참가비 : 250불
- 준비물 : 성경, 세면도구

JHM 초청대상

- 육체적인 질병과 씨름하며 고통중에 있는 분
- 죄인 줄 알면서도 자기의지로 절제할 수 없는 각종 중독(마약, 술, 도박, 음란) 등으로 고민하는 분
- 복잡한 문제에 얽혀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상실한 채 방황하는 분
- 영적 세계에 눈은 열렸지만(예언, 영분별 등) 분간이 잘 되지않아 짓눌려 있거나 궁금한 분
- 영적 은사를 사모하는 분
- 방언을 하지만 확신이 없거나 방언은사를 사모하는 분
- 진정한 영적싸움과 그 승리의 원리를 알기 원하는 분
-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성경적인 돌파구를 찾기 원하는 분
- 많은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자아문제와 신앙성장 문제에 걸려 고민하는 분

JESUS HEALING MINISTRY | 주소: P.O. Box 74069, Los Angeles, CA 90004 문의전화: 213.806.9990